東亞日報

本紙六面

勞働者百萬

一

總督府의 調査한바에 依하면 朝鮮에 有業勞働者數가 九十五萬四千八百三十二(壬戌八月現在)라 한다 그後五年間에 이 數는 增加하엿슬것이다 一百二三十萬이라고 推定하면 大差업슬것이다

朝鮮紡績이 이미 京城에 工場을 두엇고 또 듯는바에 依하건대 王子製紙其他 日本의 大工場이 原料와 或은 資源의 低廉을 차자 朝鮮에 工場을 建設하려 하며 또 朝鮮鐵道網計劃도 發表되엿슨즉 이압흐로 朝鮮의 勞働者數는 激增하는 勢를 보일것은 明白한일이다

二

事業勞働者라 하면 無論 農業勞働者를 除한것 換言하면 工業及商業勞働者가 全朝鮮에 百萬以上이라 함은 그러케 적은 數는 아니나 이것이 近代式產業制度가 들어온지 아직 日淺한것으로 보아 決코 적은 數는 아니다 …

三

…

四

…

五

…

日人의屈辱的大讓步로
漢口對日罷業解決
英佛人은籠城準備中

…(漢口廿七日發)

蔣氏에取締要求
日政府가日人迫害로

…(東京電)

顧內閣總辭職
二十八日五氏에通電

…(北京廿一日發)

後繼組閣鄭謙?

…(北京二十八日發)

顏藩兩氏留任?

…(北京二十八日發)

奉天兵砲隊
廿八日向天津

…(奉天廿八日發)

新疆督軍死去

…(北京二十八日發)

張作霖氏
吳佩孚를罷免?
消極態度를持續한다고

…

列國勸告와
對治外法權
中側委員宣言

…(北京二十八日發)

▲中國委員宣言書

一、…
二、…
三、…
四、…
五、…

起債不能
四國公使聲明
關稅擔保

…

赤化防止紙發刊

…

國聯混合委員

…

浙江自主決定
省의政務는省人處理
他省軍隊의入省은絕對拒絕

…(上海廿八日發)

孫張反對大會
會衆者萬五千、市中行列

…(上海二十八日發)

日無產黨의分野(二)
當分極左右中間三派로鼎立?

…

園公은政府支持
若槻首相은解散斷行意嚮

…(東京電)

擴大된獨伊交涉
로칼노式條約締結?
外部干涉으로實現은無望

…(巴里二十七日發)

米、墨風雲危急
石油係爭에米態度强硬으로

…(巴里二十七日發)

맥도날드氏
首領引退說否認

…(倫敦廿八日發)

스트렐氏駐米說

…(墨西哥市二十七日發)

佛海軍豫算削減
國防能力不阻害로

…(巴里二十六日發)

五歲皇子擁立
羅國自由黨

…

三米人의採金權

…

佛海軍
니스에集合
伊人越境防止次

…(英斯科二十七日發)

◇東亞漫畫　投稿歡迎　薄謝贈呈

二大問題의將來
箕浦氏는畢竟有罪
田中山梨兩大將은不起訴

…

硬派慘敗
殆復業狀態
英炭坑罷業

…(倫敦廿八日發)

船會社買收確實

…(倫敦二十七日發)

政本提携困難
政策問題도잇서서
感情問題外

…(東京電)

朝鮮에
國有財產法
適用은自明年

…

◇『세』氏暗殺說否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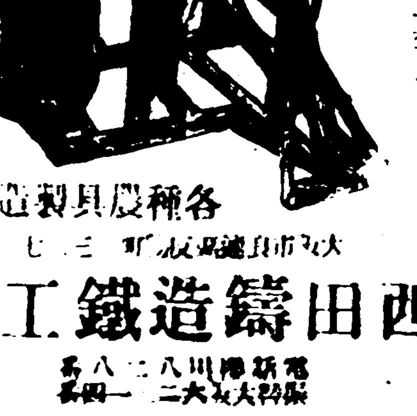
…

橫說竪說

…

萬種書籍을完備하고正當價格으로酬應하오니多小를不拘하고注文하시요
新舊書林

本邦唯一의精良品
샷구
丁子堂

西田式製繩機械
特約店募集
型錄送呈

各種農具製造元
西田鑄造鐵工所

時計

株式會社 大澤商會京城支店

病氣의相談
家庭醫學全書

帽章校服단추
메달마크
製作
元工場營業部

團成社
電話光一九五九番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〇番

攝政宮鹵簿에 怪漢이 突現

단도를품고갓가히덤비여 직소한후에죽으려든괴한 目的은政黨醜行直訴

어제이십구일오전열시사십오분경 섭정궁전하(攝政宮殿下)가 동경관어소(赤坂御所)를나서시어궁성(宮城)으로향하시든길에 의외의괴한이 거중행렬에갓가히나와 타신수레에손을대려든 코직소(直訴)하고저하다가미포되엿는데괴한은 웅본현(熊本縣)에서이십팔일에동경에도래한평산정해(平山正海)(二八)로 이외가튼일은전에못본일이라더라(동경뎐보)

怪漢은京都僧侶

괴한은 경도부법곡원(京都府法谷院) 주지로 승려인데 이번에 가치거중행렬에 갓가히 접근하엿든일은 귀용일이라하며 괴한은 죽을각오로 직소를하려든것으로 일본(日報)복을입고 회중에는 친집에싼 단도를 품엇섯는데 목여를 달한후에는 할복자살을 할 결심이엇다하며 상소문내용은 비밀에붙처나 방금 일본정계의 부패한것을 분개하는문자가 라렬되엿섯다더라(동경뎐보)

警衛責任이問題

동경적판어소(赤坂御所) 압헤서 된 직소사건(直訴事件)에 대하여는 궁내성측에서는 그범인이엇더한 경로로써 갓가히하엿다하는것에 대하여 관계신한 언명을피하는중이나 직소자의 모양이 불명하게 뎐하의눈에보이기에지 갓갑게 이르럿든것은 아죽 엇지 업섯든 일로 목하경위책임에 대하야 협의중이라더라(동경뎐보)

終幕된 選擧戰과 醜聞片片

雙方의 主張은 日字計算問題

부는이십일부터계산하고 리씨는이십일일부터계산 京城府와李弘鍾氏論爭

긔보=경성부(京城府)협의원 선거에 차점으로락선된 리홍종(李弘鍾)씨가지난이십오일에경긔(京畿)도지사에게부정투표잇는것을 발하여신청하엿든사건은그후종산(鍾山)경찰서에서자귀관내에 그외가튼 부정투표가 잇는가를 방금조사중이나 아직 확실한증거가나타나지안는모양인데 일방으로는 리홍종씨의신립이 부제시행규측(府制施行規則)에 잇는오일간을경과하엿다하야 조문해석으로 쌍방이 각각주장하는바가다르다는바내용을듯건대 선거당일인지난십일로부터오일간이라면 이십사일에 대출하여야할것이요 이십일일부터 계산한다면 이십오일에 대출한리라는때 만일리씨의주장이 섬다 되면 문제는 더욱확대될터이라더라

「選擧全體取消」와 當選取消가重要問題

일레의권한은지사에잇소 釜議問題와中村文書課長談

작보=부산(釜山)부협의원선거(選擧)에 대하야 상경하엿든 회뎐(和田)경남지사는총독부당국과타합한후 회정하엿는데 부제시행규측(府制施行規則)에의지하야 부정한선거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할모양이라는바 이에 대하야 중촌문서과장(中村文書課長)은아래와가치 말하더라

「그문제는타협한바가 잇섯스나권한은도지사에게잇습니다 아모말업시그대로지내가지는 못하겟지요선거전례를취소할가 당선자를취소할가하는두가지밧게업습니다」

難治病「癌腫」 全治法發見

곳치지못하는병이라는암종치료법 오지리의사가단백질로치료한다고 澳國醫師의新發明

『오스트리아』나라 수부 윈나(維也納)의 외과부(外科部)에서 발표된바에 의지하면 오스트리아그라츠에 외과의사 시체(…)씨는 불치병이라고하는 암(癌)의 완치방법을완전히 연구하엿는데 그방법은 단백질(蛋白質)을 만히신체에 주사하야 신체의 대한혈을 극도로긴장케하는 방법으로 자우이들뭇동안에 죽지할수잇는것이라더라(나우연뎐보)

「事實이면大福音」

그러나알수업는말이외다 總督府醫院白麟濟氏談

암이라는병은 결핵병(結核病)과 하여 왓다 이가치어려운 병중에 한가지로 걸리기만하면 곳치지 세게의의학자는 머리를 싸이여 못하는병으로 해결치 못할어려 연구하여왓스되 아직완전한 치료법은 업는데라고 아직 완전치 못하야 외학계의 난치병으로 암과결핵만이남어잇는때이새소식에 대하야 총독부의원백린제(白麟濟)씨는 「그내용을 짐작할수는 업소이다마는 소위단백질치료법(蛋白質治療法)이라하야 지금까지 의학자간에 매우만히 연구도하엿고 시험도하여 보앗지마는 단백질주사로는 불치병이라고하는암을그러케쉽게치료할것갓지안습니다마는 이소식이 사실이라면 세계인류의 행복을주는 대발견일것이외다」라고하더라

戶稅를橫食

면서긔는면직

함경남도북청군양가면(咸鏡南道北靑郡良家面)회계원 김용호(金龍浩)는대정십사년도수해구제금과멋호세(戶稅)가라면(兩)유치저금(留置貯金)이백여원을횡령한 사실이 지난십오일경에발각되야 즉시면직을당하엿다더라(북청)

山中에血兒屍

과부의소위인듯

지난이십오일 오전여덟시 경에 전남화순군 화순면광덕리(和順郡和順面廣德里) 뒷산비부덤에 다출생한지 일주일쯤된 어린아희의 목을매여죽인후 버린것이 발각되여 그곳경찰은 활동을개시하엿다는데어느과부의소위가 아닌가한다더라(화순)

竹添町小火

재작이십팔일오후 두시이분경에 시내죽첨뎡(竹添町)삼뎡목일백십삼번디 포목상 차동혼(車東勳)(…)의 집에불이나서 소방대의 출동으로 즉시진화하야 손해는약삼원가량이엿섯다는데 원인은 온돌로부터 실화라더라

再昨夜도四十餘

한달동안에삼백여명이떠나 間島行客과往十里驛

생활곤난으로 고국산천을 리별하고 서북간도(西北間島)를 향하야 떠나는동포가 부지기수이나 수확의 총결산기인 가을철이지내고 저울철이 되면서부터는 류리동포가 더욱격증하야서 외왕십리역(往十里驛)을 떠나는 이주동포도 은일몸일은 고려범게속출발하는중이라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십륙일오후 열한시 이십칠분왕십리역을출발하는 렬차에도 남녀로소륙십삼명의 십여가구가 떠낫고재작이십팔일오후열한시 이십칠분 렬차에도 사십륙명의 남부녀대한류랑민이 출발하엿다는데 한달동안이때 동왕십리역을 떠나 서북간도로 향한수가 팔백여명에당한다더라

同胞被殺

봉텬잇는동포 강도에게총을마저

지난십삼일에 봉텬성회덕현진가둔(奉天省懷德縣秦家屯)조선인 리운복(李雲福)(二六)은 복부에총을마저 즉사하엿다는데 사흘전에 도자(稻子)를 흑림자(黑林子)에게가서 팔아서 봉표(奉票)팔백원을가지고 집으로도라가서 저녁밥을먹든중 강도세명이 달려들어서 돈을내여노라고 할때에 리운복은 뒤문을열치고나갓든바 밧게서 파수를보고잇든강도가 그만총을 난사하야즉사케하고 돈팔백원을 가저갓다는데 중국관헌이 혐의자두명을검거하야 취조중이든바 회덕현으로넘기고범인을수색중이더라(당춘)

朝鮮救世軍紛糾問題

眞相을調査코저 敎役者大會

교섭위원세명을선거코사 南北監理와長老敎活動

조선구세군의 분규는 아죽도해결의여망이업고 더욱 맹렬하야 조선긔독교회의 적지안은 영향이잇슬모양인데 작이십구일 오전에는 시내남북감리교회(南北監理敎會)와 당로교회(長老敎會)의교역자 수십명이 시내종로(鍾路)중앙전도관(中央傳道館)안에서 모히여구세군 분규문데에대하야 여러가지를 토의하고 그진상을 조사하야 두편의원만한해결을지케하고저 교섭위원김영섭(金永燮)목사와 홍종숙(洪鍾肅)목사등세명을 선거하야 일간에 서나각방면에 구세군 본영측에 교섭을하야 별현효과는 업섯스나금후로 또다시 엇던방식으로든지 교섭조뎡하리라더라

批判講演準備

다시맹렬한비판으로구세군서양인측을대항하는입이면직을당한조선인사관파병사들은동문데의비판강연회(批判講演會)를시내경운동(慶雲洞)텬도교긔념관안에서 개최코저종로서에 교섭중경찰측에서는 회장사용에 관계로 회장을변경하면 그집회를허가하겟다하야다시회장을어데로 뎡코저하는동그를준비하는중이며전부터 게획하든 서양인귀환청원회(請願會)는긔회를보아개회하리라는데 일방현데에서는 각디긔독교회청년회에서간의진후 진상을통달코저준비중이라더라

一方으로發砲 一洞을强制搜索

밀주와엽담배를찻는다고 동민은강도라고고발하여 晋州郡屬과專賣員의不法

진주군수곡면사곡리(晋州郡水谷面士谷里)하영진(河泳珍)외 덕양복인은 월년두명이 돌연히 침입하야 주인의승락도업시 강제로 가택수색을 하려함으로 그집주인은 시국표방 강도인줄 알고몸을살작피하엿는데그들은 싸랑방네군데의 자물쇠를 장도리로부수어 수색하고 또내정으로돌입하야 구두신은채로 안방에들어서 그영해방장근문을부수고수색함으로 즉시 주재소에 강도라고 고발하엿든바 그들은 대구전매국진주출장소원(大邱專賣局晋州出張所員)정일수(鄭一守)김태두(金泰斗)인것이판명되여그날은 그럭저럭 도라가고그잇흔날에 또다시군령 서긔두명과전매국원 다섯명이 갑작이그동리전부를 수색하는 동시에그동리 안산으로부터 삼사방의총소리가나게되야일반동민은일시소동을 하엿섯다는데 그들이그동리에서 밀주한다는 구실로 그리한것이고 그총소리는 전매국출장소장의아우 신뎐고(新田高)가즘생을보고 발포한것이라하더라(진주)

大尉昇任만實現

이십개조요구에요것만실현

구세군의 분규문데가 이러난이후로 조선인사관측에서 요구하엿든 이십여개조건중의 하나인 『서양인혜인(惠仁)을 우대하여 달나』는조건만은 최근에『쌕드』대당의허가라는 종국으로동혜인씨를대위로승격하엿다더라

馬賊의脅迫狀

부호들이써러

무송(撫松)통화(通化)각현으로부터 이동되어간지 휘자알수업는흉한마적 약일천명은 이십사일커녁께림강현삼분자(三岔子)=모아산의서방십이리(帽兒山의西方十二哩)=에집합하야수대로 난호여 가지고모아산 시가를습격하고자 차차강안디대로 갓가히 갓다는정보를 바든 모아산경찰서는 근방주재관헌을 비상소집하는 동시에이십사일밤 부터 모아산시가의각관문을 폐쇄하고 엄중경계를하는중이라는데 마적단 측에서는 동디내각부호들에게 협박문을보내는동시에 시민들의 인심은 자못흉흉하야 피난준비를 하는중이라더라(모커뎐보)

팟두되로搜索

일본인의소위

충북보은군 보은면삼산리(忠北報恩郡報恩面三山里) 에서려관업하는일본인천상(川上)이는동면동리최상호(崔相浩)를십부탐도서하고 일도식히면서 이삼년동안을 지내오든바 지난이십사일에 천상이가 최상호에게자긔가금년에작농한팟(赤豆)이약두되가량 날러이니 다작하야달나함으로최상호는 그팟을 가저다가타작하야 노앗던바 천상이가보고 팟이그와갓치 적은것은필연코 집에감춘것이라고 모함을함으로 최상호는 사실이업다고변명하엿던바 천상이가 가택을수색하겟다 함으로 최상호는자긔의 가장집물을마당에 내여놋코한참야단을쳣다더라(보은)

약사십발은 산파의딸『노부에』(一九)로부터엇어가지고잇다가신월십칠일밤에 삼판통 백구십구번디좌좌목영래랑(佐佐木榮太郞)의집에가서여러사람이 안진중에그총혈포를 쏘내여가지고 자랑을한후도라가든길에그날밤열시경에 삼판소학교(三坂小學校)부근길우에서싱겁게 권총한방을노코도라간것인데그자는의연히그권총에실탄을재와몸에진이고 그달이십팔일밤에는 동모수명과가치 신뎡유곽(遊廓)에가서 유흥한일도잇섯다 그보다얼마전 그달십팔일에는 친긔주인산과에게 성적이 불량하다고 질책을당하고 크게분개하야 그권총으로 산과의부부를 총살하고 자긔도자살할결심으로 자긔부친과 신문사에보내는 유서까지써놋코 실행하랴다가 스스로중지한사실도 잇섯다하며 그외에그세탁소에서 세탁갑 밧은돈이백십사원륙십일전을횡령하여먹은사실도잇다더라

便所에女兒暗葬

닥씩한짓한일본녀자

일본미도시(尾道市)대안인향도동촌궁본청송(向島東村宮本淸松)(…)은자식이업서서 지금그의딸로잇는『이도』(二五)가두살때에양녀로 어더다 길러오든중 그는성미가 괴악하야 사위를몃식이나갈어 드리엇든까닭으로『이도』에게는 아비달흔 『요시고』(五)『시즈에』(三)등두딸을 나어길으매 눈물로세월을 보내든터인데 친척청송은 요사이에자긔집이점점 쇠퇴하야 가는 것을손녀들이 잇는까닭이라고 어린것들에게먹을것을 주지 안트니지난이십칠일 정오경에 술이잔득취하야 집에도라와서 점심을먹고잇는『시즈에』를죽이겟다고날쒸는고로『이도』는그어린아희를안고도망을 하얏스나 긔어코쏘차와서『시즈에』를빼아서 다가 변소에다 집어넣어 바리엿슴으로 … 즉시 … 생명이 위독하다하며 청송은 그곳경찰에 테포되어취조중이라더라

『朝鮮內報』發行

시내황금뎡사뎡목에 잇는 제국흥신소(帝國興信所)에서는그동안조선문신문발행인가(新聞發行認可)를당국에 신청하엿든바 금월이십삼일 부로신문지법(新聞紙法)과신용보지법(信用保持法)에의하야 인가되엿슴으로신문지일홈은조선내보(朝鮮內報)로하고래월십오일부터발간할터이며오일마다일차식발행한다는데그내용은 상업상의 파신행위와영업상태등의보도로뎐즘인은 전의용(全義鎔)씨러더라

戰鬪機增備

뎡찰삼개중대(偵察三個中隊)로되여잇든평양비행대륙련대에는명년도부터다시전투일개중대(戰鬪一個中隊)를더두기로하야금년안으로그교육긔(敎育機)로써 비행기두체가도착되리라더라

◇團體와集會◇

▲중앙『엡웟』청년회강연 은작이십구일 오후일곱시부터 시내 남대문안(南大門內)상동레배당안에서한치관(韓稚觀)씨의『과학(科學)과종교(宗敎)』라는 데의학술강연이잇섯다고

▲조선농민사리사회 시내경운동(慶雲洞)팔십번디에잇는 조선농민사본부(朝鮮農民社本部)에서는지난이십팔일 오후네시부터시내국일관(國一館)에서 리사회(理事會)를열고동사우회규약을결뎡하엿더라

◇휴지통

▲구세군서양인측에서 면직된 사관병사들의 관을 청하여다놋코 레배를보려다가▲거어십팔일에도그들의질문에그만레배의옷을 채맛치지못하고 흐지부지 ▲그리고금후로는 질문하는 그들을 일테레배당에 드러오지도 못하게하여달라고경찰에게애원중이라고▲그들은『재단에례물을드리기전에 원수가잇거던 먼저가서 사화한후에드리라……』하는 성경도못본모양▲아모리경찰만능이기로 경찰업시는 레배도못본담! 그러케령명이나하엿기에 그럿치 경관이업섯드라면 레배시작도못하엿슬번하엿군

三坂通拳銃事件犯人 殺人豫備로起訴

그외에도두가지의죄명 日本人拳銃어더犯行

지난달십칠일밤시내삼판통(三坂通)에서 괴상한권총사건이잇섯다함은 당시에긔보한 바어니와 그범인은 경기도양주군부내면덕소리(楊州郡阜內面德沼里)에원적을두고 시내화원뎡(花園町)오십삼번디일본인산과살마장세탁집(山科藤摩堂洗濯屋)에외교원으로잇든 김완진(金完鎭)(三五)의소위로판명되야 상순본뎡서에 검거되야 취조를 밧고 동서부일경성디방법원검사국으로넘어가 수일전동검사국에서 살인예비업무상횡령(殺人豫備業務上橫領)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銃砲火藥類取締令違反)으로기소되야 동법원공판에부첫는데 그내용은 금년팔월중에 전긔세탁소주인 산과초랑(山科初郞)이 가경찰의허가업시 자긔집에간직하여두엇든것이시년식륙련발권총한자루와 탄환

水原古塚에서 「미라」를發見

큰일이낫다고경찰이야단 防砂工事中大石棺을發掘

얼마전에 수원군수원면(水原郡水原面)사방(砂防)공사중인부들이 고분을발견하고 석관이잇는것을 알엇섯는데 지난이십칠일오전열한시에 경성대대조교수미촌(梶村)의학사와밋총독부촉탁소천(小泉)씨등이 현당에 출당하야그석관을발굴한결과 기리칠척폭과두레 각이척식되는석관을열어덧는바 새작이십팔일에는 경찰관립회로관을열어붙터이라하며 그속에는 인간의『미라』가드러잇다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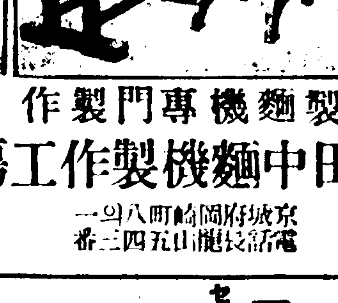
新築光化門郵便局

종로(鍾路)일뎡목에새로짓는광화문(光化門)우편국은 지난오월에 긔공하야십일월로준공하고래월사일에락성식을거행하기로되엿는데이집은당문조(臆門組)에서마러지은것으로본관은이층팔십팔평이오현업실(現業室)은 단층백오십일평으로 총연평이사백팔십오평인데총비용에『라듸』장식을한근대식이라하며새로장치되는던긔업착식의던보긔송신비(電報氣送設備)는조선에서는처음보는긔계로 특히자랑할만한것이라는데 이던은총일이라하며총경비는팔만칠천원이라더라

靑年一名을取調

사직동근처에서엇잿다고 鍾路署가수선수선

괴내권총사건(機內拳銃)으로리수흥(李壽興)등세명을 데포하고 작이십구일에 일으기까지약 일단락을고한이후로 엄마동안은 쉬고이는상태이든 종로서고동게에서는지난이십칠일밤예감작히 대활동을 개시하야게원수명이시내사직동(社稷洞)에일으러서리○혁(李○爀)이라는청년한명을 다려다 동서에검속하고 사부당의 손으로 엄중취조중이라는바 사건의내용은 극히비밀에하는까닭에자세한것은보도할수업스나 ○○금데공하라고 부호를 협박하얏다는 혐의인듯하다더라

製麵機特價大販賣
責任保證付
最新式
機械堅牢技術優秀
特價金壹百拾圓부터
地方特約店募集
型錄進呈

金四百七拾圓까지
數種類專門製作
製麵機專門製作
合資會社 田中麵機製作工場
京城府岡崎町八의一
電話龍山五四三番

博士의薦하는藥効的齒磨 入鐘丸은 한强味涼淸 優良品別製
仁丹のハミガキ
絶對로舶來品을凌駕한國產品
仁丹의体温計
△四博士顧問指導
△廿博士實驗推奬
M型 平型 武圓卅錢
M型 棒狀 武圓五拾錢

懷中藥
仁丹의活用은 旅行과、遠足에 讀書와、散步에
忍耐는運命을익인다(무배란)
2-4-7-10

大大的値下斷行
學生靴六圓以上
紳士靴七圓以上
地方은見樣書用紙發送 市內는店員出張
京城府黃金町三丁目二九一番地(若草町停留場前)
安蘇靴店
電話本局二八五一番

고무신은신용잇는지구표요

견고한고무신은 지구표외에또업소
合資會社 朝鮮고무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電話本局二一四二番 振替京城七五七一番
일년간신는신은、지구표고무신이요

結婚하지못하는靑年의悲痛한告白
그原因은生殖器能障害
아조적은費用으로容易히回復
만흔醫學博士大家의證明
學校도卒業하고、就職도定하고、年齡도相當하다고親戚이나知己로부터結婚談이비오듯하고만흔亦親도李水治療法을…
◇包莖은從來手術하야切取하는外에…
◇說明書 新聞名記入 無代進呈
新療法硏究所

大高評을밧는 內服用六〇六號
가래톳、횡강、下疳은手術치안코治療함
명우리와痲氣업서지며
頑固한梅毒에도神妙함

最近에온禮狀의一例
頓首惠謝狀
九月二十三日
昌城郡大楡洞 金○○上

【藥價】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二丁目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
附屬醫院

ClibPDF - www.fastio.com

文藝

◇巴里에서開城까지◇ (3)

上海에서南京으로

中國式沐浴四十錢이면넉넉

金在殷

[illegible]으로下關을떠난배에 非字形으로 臥床에누엇스면 茶잇다마렵해 주것이여기저기들오는개뭣 주고떡씻는手巾은 얼마라도수 오辦事로두고만든 人工的記錄 흥이라도 얼마만하면잇아주고 이다 漢族의個性이 머강이라하나 엄에는中國童子가와서 한거番 이방면에는 가물로서樣式이 게부채질하며주면 술그런하게 가偶然이아니라는所聞이다 다음을도온다 그리고도四十錢만주 다 非常한土地에往着하는 民族의 선덕보한것이 中國式沐浴이다 文化는一般的으로좀흔것을 沐浴後에 食堂으로가서 저녁을 가公然한다 果然小國의文化는 먹고揚子江岸에 夜色을잠겨보 揚子江沿岸地帶에서發祥하고 나들에바친將作은 [illegible] 發하다 上海, 蘇州, 杭州, 鎭江, 리를슬퍼하얏다 南京, 九江, 漢口, 漢陽, 武昌, 岳州, 長沙, 宜昌, 重慶等은有名한 [illegible]

[illegible]

時調

늘 섬

남자커가는집이 왜이리險한지요 內형어鳳山이여요 물건네를또로다 두어라아모리險할지라도 가볼가하노라

金龍

秋波

[illegible]

詩壇의回顧 (二)

詩人選集을읽고

梁柱東

朝鮮에 當時所謂新體詩(우리말詩)가 언케누구의손으로부터 始作되엿는지 나는그것을仔細히몰오나 六堂이『靑春』에실녓든 時歌體의『노래』갓흔것은 新體詩의發詩로보아 大端가 업습줄하다 만일그때부터始作 이라볼수는업다 그러나新體詩

[illegible]

時調란무엇인고

가람 李秉岐

五

나비야靑山가자 범나비너도 가자가다가 저물거든 꼿에들 어자고가자 꼿에서푸대접하거 든닙에서나자고가자

×

붉이날이 쓸린맛을 넘에게돌 아가지저무러다사한벼를넘에 기려이과저넘에야무엇이업스 랴마는내못니저하노라

×

물찬이날맛는냐노고질이우지 진다소치는 아이놈은 상긔아 니닐엇느냐 재넘어 사래긴바 출언제갈려하느니

×

닷도자떠나오니 이제가면언 제오려만경창파에가는듯돌이 아오소만중만 지국총소리에 애긋는듯하여라

×

술이라솔이라하니 무슨술만 [illegible]

이야기어볼줄잇스라 이따위들이니 朝鮮氏體詩에서 만히울어나난것이다

朝鮮式句調는朝鮮語로主體를 삼고업마음漢文式句調를 섯거 지은것이니 나를러면

梨花에月白하고 銀漢은三更 인데 一枝春心을 子規야알라 마는多情도 病인양하여잠못 들어하노라

×

靑山裏 碧溪水야 수이감을자 랑마라 一到滄海하면 다시 오기어려워라 明月이滿空山 하니쉬어간들어떠리

×

雪月이滿庭한데 바람아 부지 마라曳履聲아닌줄은 判然히알 건마는그리운 아쉬운마음에 행혀긴가하노라

口訣式句調는 사꼿漢詩나漢 文의句節에토만달은것이니 홀터면

[illegible]

별장

그날밤자정이나 되야서 준상의집을 버서저나온 일영이는그 길로혜경의 숙소를향하야 발을 치를돌니고른길로 나스자산산 한바람이 속옷속으로 숨여들며 쳐입에서나는 술내음새가 몰큰 치른다 일영은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급히 거럿다 혜경의집갓 가히 이르럿슬때 골목안으로부 터압뒤대를 질근인력거 한채가 풍우가치 몰아나온다 우비를씨 워서탄사람이 누군지는 알수업 스나 어느돈잇는놈의 첩의집행 차인가보다하고 짐을 비켜주엇 다인력거는 바로일영의 억개를 슷치고지나갓다

혜숙의 숙소에 다닥처온일에 혜경이가 알으켜준번대로 대문 틈으로 팔꿋을 드려밀어살살빗 장을밀어 벗기고 안마당에 들어 서발꿋을 적이며 혜경의문압호 로갓가히가서 미다지를 똑똑 드렷다 방에불은 써졋는데귀를 기우려도 인사긔척이업다 잠이 깁히들엇나보다 하고 미다지를 살그머니열고나오히

『혜경씨』

하고불러 보앗다 여전히대답 이업다 일영은의아해서 눈동자 를되人볼가치 둘러감작한 방안 을살펴보앗다 원일인지 마진착 들장이 반이나열녀 하풀의추충 한편이 나여다보이고 빈소방가 치찬바람이 휘—돌은

일영은 청냥늦도록 거엇다방 한구석에는 현신문지와 휴지뭉 텅이가 흐트러졋고 혜경은그림 자도 차질수업다 일영은가슴이 덜컥내려안는듯 방바닥에가 펄 석주저안지며 아랫목에 손을대 여보니 운명이갓가워 마즈막숨 길을거두어 드리는 사람의데온 과가치 아직도 미지근한온긔는 가시지안엇스나 이자리에 누엇 든사람은 별서간곳을 차즐길업 고쥐가반자를 쏘는소리만 일영 의머리속을 바—바— 글거낸다

『누구냐?』

하고안방쥔부엌엘어졋드라며산 장을캔주인은소리를빽질렀다

……일영은 혜경이가 벌서준상 의집으로 간것을 주인마누라에 게듣엇다 골목밧갓호로 풍우가 치 몰아가든 그인력거—그 것은 혜경이가타고간 섬인칠한 상여가아니엿든가?

주인마누라는 편지한장을 일 영에게 권하얏다

영화소설 탈춤 (禁無斷撮影)

二十一

沈熏 原作

그림자……羅雲奎
林俊相……朱仁圭

×

일영씨! 제가 죽은줄만아시 고 차저주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저를진정으로사랑해주 섯거던 이몸의허물을 너그러 히용서하여 주시고 지난일은 영영니저버려주시기를바라오며 만일혜경의 무정함을 길이용 서하실수업거던 날카로운 비 수를 제가슴에 꼬자주십시오 아아 당신의손으로나 이몸이 죽사오면 얼마나 깃분마음으 로 눈을감으오릿가?

×

일영은 머리카락을 쥐여뜻으 며 어린애처럼 엉엉울다가골통 이째여저라하고 벽에다 머리를 들부되엿다가 지처느러저 주인 업는빈방에서 하로밤을 밝혓다 그이튼날아츰 여러날을두고 일영을 차저다니든 홍렬에게잇 슬녀 로동숙박소방구석에서 오 래간만에두친구가모히게되엿다 사흘후

준상의별장—

새로두시나되여서 혜경은 거 우잡이들엇다 혜경의 침실로된 한방은 뭇리창밧그로 욱어진수 림이 내여다보이는 남향한양실 이엿스니 창압에조그마한 침대 가노엿다

근처에 인가도업는 외따른집 담모퉁이에가서며번에푹저굴어 자의정데는 가슴에 손을대이고 준상이가쏜총혈포한방에그립 때—○하는소리와함께류리창 이산산조각이나며 혜경은 침대 에서 한자가량이나소사다 떨어 다렷다

준상은업될긔에방아쇠를잡아 당겨졈에방으로뛰여가 서든고속에 너어둔 총혈포를쉬 내여 알홀재위가지고 돌아왓다 싯검은 그림자는 또어듸로거린다 총쎄리는 그림자를견냥하고 한 참이나노린다

준상은겁결에게방으로뛰여가 리창밧게서 그무서운 괴상한사 람이 거닐고잇다

혜경의허리를끌어안으려할때 훤히흘우에 난데업는 싯검은그 림자가 어른거린다 준상은뭉실 해서 창밧글내여다보니 과연류 다란손으로내밀어

혜경은몸을비쓰며모로꼬는다 꿈틀꿈틀어질듯이 네려다보다가기 준상은 한참이나 혜경의자는얼

상이엿다

혜경은꿈에 무섭게 소리업 시열리며 시커문발이 문지방을 넘어들어오더니 저벅저벅 혜경 의침대압까지와서는 멈춘다 이 윽고 하얏고 기다란손이쑥내밀 벗길러한다—얇은단의 만일은준 며 혜경의가슴을헷치고 이불을

×

어나밤이 며부쉬거고저한자이다

당련에서녀자청년회창립

황해도당련(長連)에는 지금까 지녀자의모임이업서 유감이든 바신진녀자제씨의 주선으로녀 자청년회를 창립하엿는데회원 수는오십여명이라하며 회장은 김상애(金相愛)부회장은 표경 현(表敬鉉)이라고합니다 (당련)

룡촌소년 야학개최

평남안주(安州)군연호면룡촌 소년회(農村少年會)는 다수한 어린이들이 지난팔월경에창립 하고현재회원이 사십여명에이 르럿는데 지난이십사일부터소 년야학회(少年夜學會)를 내삼 리권강습소내에서 개최하엿다 고합니다(안주)

◇新刊紹介◇

◀探偵往來(犯罪研究創刊號) 不思議한指環等定價金二十錢振 替大阪三一九七二番大阪市北區 曾根崎上三丁目大同書院

毛生藥 후미나인의 靈効에對하야 急告

我國皮膚科의權威田中醫學博士友(東京春陽堂發行大正十一 年十二月號)에『難病을治癒한나 가多年苦心研鑽한結果創製된毛 生藥フミナイン이毛母毛囊等毛 의經驗』欄中에探錄한左의一文 根基底部에對한營養, 刺戟, 殺菌 을見함에及하야新히 一段의力을 淨血等, 實로毛生에必要한要素 添함을感하나이다. 玆에轉記하 의全部를具備하야毛를生케하며 야世上에아직フミナイン이잇슴 脫毛를止하는靈効가잇슴은贅言 을不知하시는老幼男女諸彥께알 復言할餘地업시天下周知의事實 게하와遺漏업시フミナイン의靈 인바帝都婦人雜誌의五號弔婦의 効에浴케하고저합니다

六十日間의忍耐로 今日의歡迎를得한吾

東京 美富子

부끄러워서執筆하기를몃번이나 躊躇하엿스나, 가치숨은마음 으로오르시는이게도이것을나누어드리고저하야 執筆을하얏 습니다.

저는二十四歲까지참으로結婚을하자고는生覺하야 본적도업 시다만幸福은엇지못할것이라斷念하고, 人生을깁히呪咀하면 서孤寂하게사라왓습니다.

그것은저가女學校에 在學中의일이올시다. 남과가치十六歲의 봄부터달마다잇는것도업지안엇고, 肉體上이나 精神上에도別 로말할만한缺陷도업시長成하엿습니다. 그러나저게는幾年을 經하여도 依然히生할곳에生치아니하엿습니다. 날이가면갈수 록저는漸漸沈鬱하여지며, 잇서야할것이업는故로不具者라하 는觀念에곳게支配되여잇섯든바其中에第一쓰리고슬푸고부끄 러운生覺을한것은 每日沐浴집에가는것이엿습니다. 그것이其 해저서몃번自殺하여버리면하는生覺을한것도一二次가아니엿 습니다. 다만그理由로저는그後學校를卒業하고도勤하는婚事 를期於拒絶하기로하고 一平生職業婦人으로立身하야獨身生活 을繼續하라고決心하얏습니다. 그래도間或新聞갓흔데毛生液 의廣告를볼때는, 살작사다가는혼자努力하엿습니다마는, 되 지안은藥이만흔때문인지조곰도 効驗이업서더욱더욱自己게는 自然의恩惠가업는것이라고, 보는사람까지情疎하게되얏습니 다. 그런데今年봄에田中醫學博士의 創製責任毛生液フミナイ ン을實得하야써보앗더니 亦是잘돗지는아니하엿스나, 使用方 法을記한것에依한즉적어도三十日普通은六七十日이나連續하 야쓰지아니하면效果不現이라함으로 効驗에對하야非常히疑心 이게六十日間이나 쓰고잇섯더니, 엇더켓습니까. 普通사람이所持 할것을完全히가지는身體로되여버려습니다. 그때의저의깃뿜 그것이야참맛으로筆舌할수업슬만치되얏습니다.

저는只今은大藏省에勤務하고잇는官吏의妻로서, 別로말할만 한不自由도업시經過하고잇는터인데, 本誌의募集을拜見한故 로저와갓흔煩惱에잡혀잇는可憐한이들이幸혀잇스면하고, 應募한것이올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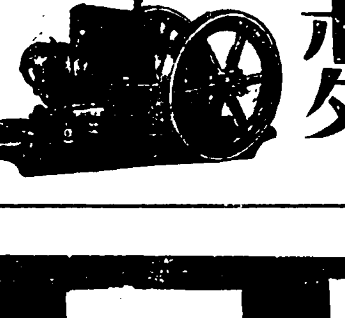
쑛호로『후미나인』은毛髮病의人 脫毛하는人, 頭髮숭거운人, 元來毛薄한人, 帽子로脫毛된人, 眉毛薄한人, 生際不良한人, 머리 메인人, 男女間잇서야할곳에無 毛, 又는薄한人等諸般毛髮不足 한데用하야靈妙顯面하게毛를生 케하고脫毛를止하는田中博士의 責任方劑이다。代價五十錢、九 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 五十錢

◎朝鮮文詳細說明書申込次第進呈

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합니다萬 一品切時는代金을添하야發賣本 舖로注文하시요川法書添付小包 便으로急送합니다

發賣本舖

東京市芝區田村町十八
東京藥院
電話靑山三五七八番
振替東京三一八三三番
大阪市赤十字病院前
東京藥院
電話南一二四六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玄米機와精米機

其他모든作業機의原動機로 는가장便利하고經濟가되는 石油發動機

クボタ

農林省比較審査에 最高第一等

◀型錄無代進呈▶

名實兼備한優秀拔群의 各博覽會에金牌受한

○渡邊式玄米機

○奧村式精米機

左記各店中最近한商店에서 便宜하시도록照會하십시요

釜山府埋立新町 忽那商店機械部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朝鮮總代理店

同 京城支店 京城鍾路通二丁目
同 鍾路販賣店
同 大邱支店 大邱府元町一丁目
同 群山出張所 群山府榮町
同 平壤出張所 平壤府大和町

효능있게 좋아 コーチゾ

效力을瞭然히아는皮膚病藥

主效 頑癬、濕疹、飛火症 汗疱、陰部汗疹 진문데、뾰루지의刺傷

(定價) 三十錢・五十錢 一圓・二圓

本舖 玉置合名會社

(全國藥店에有함)

ソ-10

歲末破格의投賣 이러케有益한 十品一圓半

著名辭典 新語の秘訣 現代資本小 金儲の秘法 和洋料理法 普通選擧辭典 ペン字習字手紙 ニーヘンモカ 愛の講議 男女美人法寫眞 ミイラ奥義 サロン名畫

新語新辭로 된 이책은 異常한말과英語섞인 새로운말을 알수잇는流行의冊 ……

右의十品은定價六圓이나 年末整理로此際二百名限 注文하시면十品보내다 ……

只今곳申込하지안흐면賣盡됩니다

振替東京二二七二三 東京赤坂丹後町十二 東興堂

별표 고무

登錄商標 별

엽부고、튼튼한 별표고무신 일년이상은 넉넉히신습니다 갑적은나즌물건에 속지만마시고 단연코、한번만 시험해보시요

상표외주의 근일가짜별표가 유행하오니상표에특별주의하시요

一、진짜별표는、별、사면으로광선(光)이뻐처잇고
二、진짜별표는 별가운데 아무것(문)자를썻고
三、뒤축에첨뎡(상표)은무르볼것이특색이외다

京城府竹添町一丁目六二 中央商工株式會社

社長 金性洙
專務取締役 金秊洙
取締役支配人 金錫懋

商業部 電話光化門長一二五〇番
工業部 京城永登浦 電話本局長一一八八番

【營業科目】

商業部 米・雜穀貿易 肥料一式 フスマ及萬種 倉庫業代理業
工業部 별표고무신 新字(?)… 京城木(?)… 京印木(?)… 製造(?)…

全州令市廣告

一、開市日 十五年十二月五日(陰十一月一日)
一、閉市日 十六年二月六日(陰十二月末日)
一、令市來客의州買物은全州商業界…
一、令市來客의…
一、令市貨物運送取扱은全州合名會社에서…

全州藥令市

八谷式製麵機械는 價格은大安價, 機械는製造

型錄을請求하시요

切刃은 가장入念하야製作品在庫豊富 各種何式이든지

地方特約店募集

製麵機械 綿絲機械 專門製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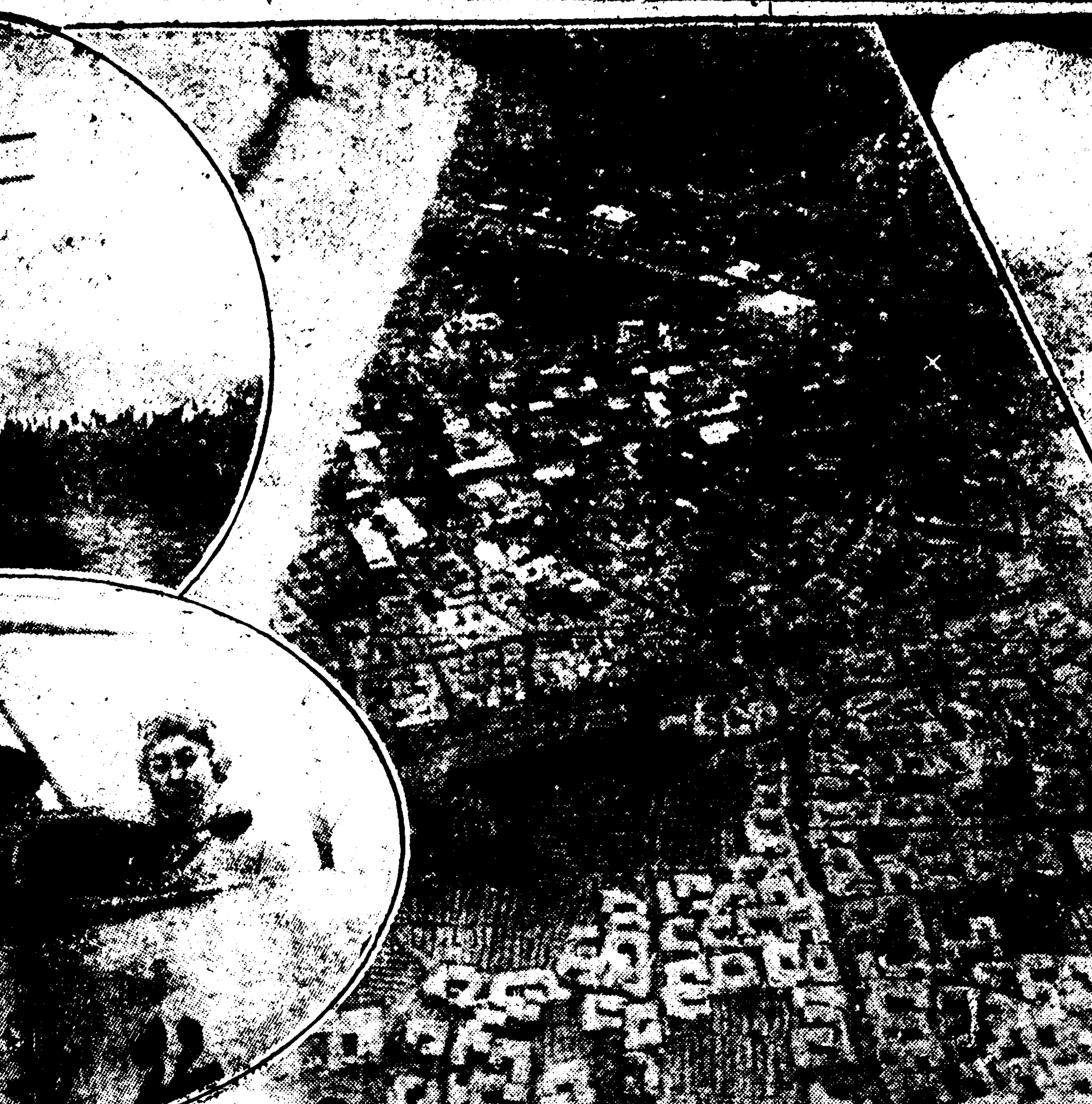
標 八谷工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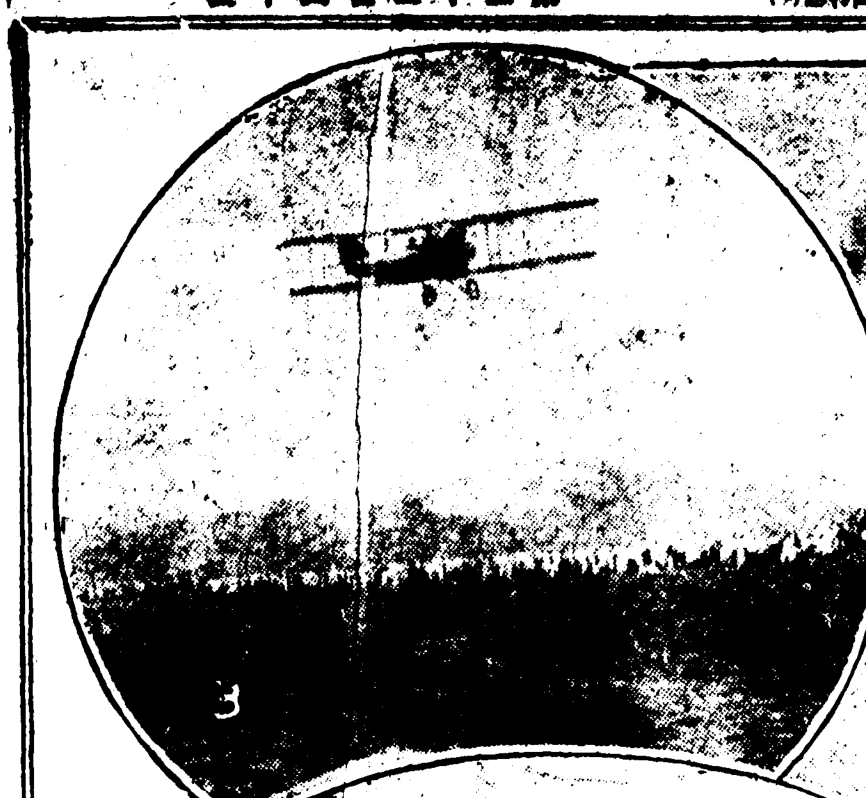
朝鮮 大邱府八雲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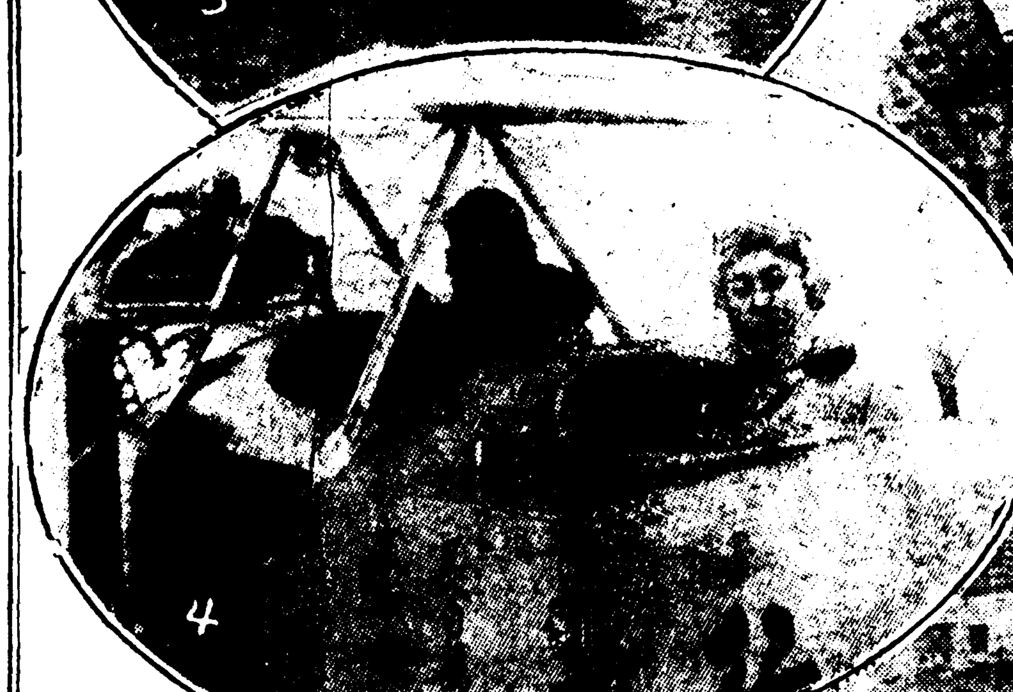
電話長一〇三番 振替京城一二三三番

兩日間開城空中으로
飛鳥가치亂舞
三萬餘觀衆의無限한歡迎裡에 넘치는歡喜로兩日間二回飛行
本支局主催、呂君飛行大會

既報=本報開城支局主催의呂君鄕土訪問飛行大會는豫定과如히지난二十七日과二十八日兩日에開城初有의大盛況으로盛히開催하엿다는데第一日인二十七日에는午前十一時二十分에呂君의飛行機가飛揚해上으로나타나자아침부터率先入場하야着陸場의周圍에人山人海를이룬二萬餘名觀衆은拍手로歡迎과喜悅을表하엿고이어서低空飛行으로市街를一周飛行한後同十一時十六分에着陸하야呂君은ᄒᆞ식한얼굴로觀衆을對할때에多數觀衆은熱狂的歡迎을하엿스며第二日인二十八日에는午前十一時十分에飛行을始作하야低空飛行으로市街를一周하며宣傳비라數萬枚를撒布하고着陸하엿다가同十一時五十分에本社에서特派한寫眞班記者와同乘하고다시飛行하야本社寫眞班記者는開城市街의全景과觀衆의光景을撮影한後飛行을繼續하다가着陸하엿다는데午後에는千萬意外에降雨로因하야飛行을하지못하고모힌觀衆은섭섭함을이기지못하고그대로散會하엿다더라(開城)







◇寫眞說明◇
1 低空飛機上에서본觀衆
2 飛行機上에서본開城市街全景(×點은南大門)
3 低空飛行光景
4 呂君着陸光景

道路工事竣工
朔州、九寧浦間

朔州地方에서는鴨綠江이物貨出入에第一繁盛한大江이나朔州와鴨綠江間의道路가不完全하야海陸輸運이甚히不便함으로朔州郡當局及有志諸氏는此를遺憾으로生覺하야오던바九曲面長宋炳奎氏의多年苦心한結果道當局에交涉하야道로부터三千八百圓의補助를밧고其餘는地方住民의負擔으로하야지난大正十三年十月부터五個年間豫定으로朔州、九寧浦間道路工事에着手하엿든바朔州郡守金轉運氏의熱心督勵한結果로意外에豫期보다工事가早速히大部分이竣工되엿슴으로至今부터는牛馬車가通行하야荷物運搬이至極便利하게되엿다더라(大舘)

學父兄會復興 慶南固城

城郡大可面松溪公立普通學校는開校以來四年制度로되여잇다가地方人士의熱誠으로昨年에六年制로延長되여生徒數도多少의增加를보게되고따라서通學生의便宜가만케되엿스나아즉것學父兄會가組織되지안해서여러가지의學務上協議機關이업슴을遺憾으로녁이던바今般該校校長徐鶴祚氏가率先出으로부터活動되여와서學父兄會의必要를늣기고去二十四日에이에準備會를該校事務室에서開하고여러가지事項을決議하엿다는바이會는몃해前에組織되여잇섯스나그存在를極히不明이엿섯든바校長徐鶴祚氏의盡力으로다시復興하게되엿다더라(固城)

總收入千二百圓으로
運動場問題解決
仁川義捐演奏盛況

既報=仁川永化普通學校運動場擴張費에補充할目的으로仁川龍洞券番主催와當地四個朝鮮文新聞支局及仁川新聞配達組合聯合後援으로義捐演奏會를開催하기로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豫定대로지난二十七、八兩日間每夜午後七時半부터濱町歌舞伎座에서開催한바初日에는定刻前부터모혀드는觀衆은立錐의餘地가업는大滿員을일우엇스며第二日인二十八日은雨天임도不拘하고亦是大滿員의盛況을묘하엿스며演奏種目으로는三十餘名妓生의總出動으로十數種의歌舞며京仁一流音樂家의洋樂及舞蹈가잇섯는데그中妓生의「世스」는더욱異彩를내여兩日間大盛況中에散會한바今番龍洞券番의美擧로當地各團體와個人有志의義捐金도率先捐出한것이約七百圓에達하엿는데그中에는特히妓生中에서個人義捐한것도不少하다하며今般演奏會의收入은前記義捐金及會員券代四百五十餘圓을合하면一千二百圓假量으로費用約二百圓을合하면또千圓의實收入을보게되여問題의運動場은이로써解決되겟다하며義捐金額及氏名은아래와갓다더라(仁川)

◇金額及氏名 ▲金一封 橫田仁川府尹 ▲三十圓式 崔承宇、金健哲(江華) 仁川釀業組合 ▲二十圓式 仁川信用組合、仁川物産客主組合、仁川米商組合、光成泰、張鍋佑 ▲十圓式 金輝箕、釀造所、李盛國、羅時極、孫憲吉、劉君晟、仁川牛肉商組合、勸業所、李東皓、公成泰、鄭世澤、仁川要舘 ▲六圓 朴夏輔 ▲五圓式 李於興、金龍植、吳正焌、孔鶴植、李學順、李興善、文丙韶、鄭鶴謨、金永德、金允福、尹秀炳、金相圭、韓圖周、仁川穀物小賣組合、李東昨、李稚鎬、安基榮、朱命基、樹春浩、金聖三、張學亮(開城)、金聖七、尹鍋周、金斗基、朱聖模、李順日、明月舘、日月舘、金鑰泰、沈相運、光成舘、金普鎬、無名氏 ▲八圓 歌舞伎座 ▲三圓式 李秉道、無名氏、金奎東、張鳳儀、孫永稼、李昌文、申萬根、仁川朝鮮少年一同、李光玉、池元舜 ▲二圓式 孫熙演、尹炳昇、李德善、林炳胎、俞昌濬、李明順女史、崔晋夏、金學允、金裕樟、鄭顯澤 ▲一圓式 金炳詩、康春學、金敬培、金永玉、金洞泰、宋振榮、崔性惠、李永弼 ▲金一封式 李康洛、金興植 ▲五十錢 無名氏이며特히龍洞券番妓生側人寄附金이一百四十六圓인바金額及氏名은如左하니 ▲金十圓式 吳香仙、林翡翠、朴琴仙、金山紅、崔桂玉、許玉眞、韓山月 ▲五圓式 金花仙、李松竹、李花鳳、金一點紅、金水鸞、千鳳姬、朴彩仙、崔蘭花、金玉仙、李松월 ▲三圓式 高錦紅、安玉珠 ▲二圓式 白雲仙、辛竹葉、金蓮香、李梨花、金山紅、李瓊月、朴錦桃、印鴻玉、柳鳳鶴、金芙蓉

全青對矯風會事件
報告演說會開催
青年會看板은다시걸기로 臨席有志會의決議

全北全州靑年會에서는會舘封鎖事件으로緊急總會를開하고決議한結果批判會와報告會를開催키로하엿든바批判會는警察의禁止를當하고지난二十七日午後七時에同會舘에서報告會를開催하고會員百餘名과一般有志五十餘名이參席한後李鼎基氏의開會辭를비롯하야各地方에서온祝電祝文을朗讀하고宋秀炳氏의會舘에對한由來와宋炳許氏의報告에依하면同會舘은全州一般有志諸氏가出捐하야大韓民會舘으로建築하엿는데그後大韓民會는自然解體되엿스나그會館은全州의公公한所有建物로明記된것과矯風會에서數三次나無理한行動을取한것이며靑年會對矯風會糾紛事件의發生한것과昨年十二月中에有志諸氏가公明正大하게決定한도無視한것을一一히報告한結果列席하엿든有志諸氏는憤慨한마음으로臨時議長李主南氏의司會로有志會를開催하고協議하엿다는데同會舘을矯風會에서獨占的態度를取함은넘어나無理한行動이라하야그即時에木看板을撤去하고會舘建築할동안은從前과갓치靑年會看板을걸고싸우자는等交涉委員을選定하야交涉하자는等또는交涉할必要도업다는等또는矯風會에指定日字以內에撤去하라고命令的으로通知하자는여러가지問題로長時間討議한結果靑年會看板은從前과갓치걸기로可決하고閉會한後에對議한것을열고左記事項을決議하고同十時에無事閉會하엿다더라(全州)

◇決議事項
一、勞働夜學開催할것
一、會館建築委員會開催할것
一、其他事項

賭租가빗싸다고
作人은不納同盟
二石收穫에三十斗要求라고

黃海道載寧郡下棘面新院里(진골)에土地를둔海州邑北幸町에사는崔昌煥氏는今年에前例에업는賭租를밧는다하여小作人全部가不納同盟을하엿다는데그內容을듯건대該土地는畓作이라야一斗落에二石可量收穫한다는바今年에는播種時에金晉金三麗氏와同作하여各小作人을訪問하고今年에는每斗落二石收穫豫定으로每斗落에三十斗式賭租를定하라고한일이잇섯든바今年에는早水虫災로豊作物이全滅狀態인데도不拘하고今春에旣定한대로納入하라고함으로小作人들은數次나崔昌煥氏를訪問하고哀願을하며折半打租를하여달라하엿스나崔昌煥氏는絕對로拒絕함으로一般小作人들은憤慨하여畢竟그와가치不納同盟外지하게된것이라더라(新院)

中等科夜學 全南綾州에

는普通學校를卒業하고도學費困難으로因하야上級學校에入學치못함으로배우고자하나배울方針이업서彷徨하는男女兒童이多數함을遺憾으로切感한綾州甲子青年會에서는數日前에委員會를開催하고協議한結果普通學校校長松原氏의後援을어더男女中等科夜學을設立하기로하고竹寺夜學을不遠間開學하리라더라(和順)

教育展覽會盛況
◇總出品九千餘點

既報=慶南東萊郡教育品展覽會는豫定會期二日을五日間으로延長하야왓왓내盛況을呈하엿는데入場者二萬餘名을合하며東萊市街는各種技藝의興行을併하야人山人海의壯觀을일우엇슴으로蕭條한城市가一時繁華의夢을綜하엿다하며出品總點數八千九百六十六點中左記四百四十六點의入賞이有하엿다더라(東萊)

◇出品點數 ▲兒童出品二三〇〇▲教員考案品一五〇▲郡內生產品二八〇四▲各種參考品一二六八▲農產品二四〇五▲蠶產品七二▲棉作品二二▲林產品七二▲工產品五二▲水產品四三點

◇入賞學校 ▲一等東萊第二公普▲二等機張公普▲三等東萊第一公普▲四等龜浦公普▲五等沙上公普

◇入賞者
一、教育品▲一等一九人▲二等二二人▲三等三八人▲四等七二人▲五等五九人
一、農產品▲一等一三人▲二等二三人▲三等二七人▲四等五〇人▲五等六二人
一、蠶產品▲一等一人▲二等一人▲三等三人▲四等六人▲五等四人
一、棉作品▲一等無▲二等一人▲三等二人▲四等一人▲五等二人
一、林產品▲一等一人▲二等二人▲三等四人▲四等五人▲五等三人
一、工產品▲一等無▲二等一人▲三等一人▲四等二人▲五等三人
一、水產品▲一等無▲二等一人▲三等二人▲四等三人▲五等七人

郡民大會延期
金泉麵組事件

金泉麵子組合과郡當局의不法行爲를聲討키爲하야金陵靑年會에서本月二十九日에郡民大會를開催하려고實行委員을選定하야去二十二日에金泉郡守에게여러가지不法條目을들어質問하엿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金泉郡守로부터아즉아모回答이업슴으로實行委員들은去二十八日午後五時부터本報支局事務所에서緊急會議를열고郡民大會에對한事項을討議하엿는데第一回郡守의答辯이今般事件은郡守로서責任이업슴으로할수업는즉事實을細密히調査하야一般郡民의疑惑이업도록解決策을講究하야다시通知하겟노라하엿슴으로郡民大會는郡守의回答이잇슬동안까지延期하기로하엿더라(金泉)

貸附林에對한
區長獨單을陳情
洞民代表들이

水原郡松山面古浦里洞民一同代表崔時化氏外三十七名(署名捺印)의名義로古浦里區長方禹鉉氏를相對로去二十一日附로水原郡廳에陳情書를提出하엿다는바內容을드르면區長方禹鉉氏와面書記崔炳九氏가協同하야洞民全體에直接利害關係가깁흔漁島國有林野를同面長洪達厚氏名義로貸付하엿든바方禹鉉氏는自己가區長인것을奇貨로漁島民十八戶에게讓與하기로하고漁島民도아닌區長方禹鉉氏實弟方濟道氏와面書記崔炳九氏二人이前記漁島十八戶民과共히貸付를하여認可를바든後洞民은손도대지못하게하고前記三人만自己所有와가치監督及權利를獨特히한다는關係이라더라(水原)

崇武團進級式 馬山崇

武團에서는內部를革新하고陣容을整頓한同時에團員이날노增加되여柔道를每日熱心으로學習한結果去二十五日下午八時에該會館內에서進級式을川崎師範司會下에서擧行하엿다는바進級된團員의氏名은如左하다하며더욱今番初段에進級된崔大奎君은本來부터體育界에特才가잇는有望한青年으로柔道界에서도將來를囑望한다더라(馬山)

初段 崔大奎、一級黃泰賢、李載煥、金聖鎬、古賀、二級崔喆龍、金正沂、金貴東、三級黃長善、朴淳直、李珍萬、曺錦祿、黃守龍、金在基、辛鏞元、四級丁學珍、吳學淳、鄭鍾在、具甲來、李性在、五級崔如大、李德祚、金容哲、張茂用、姜宗祿、金點守

「오기나球」는外部的으로治療하는藥인데萬若內部的으로治療하는「命之母」라는藥과併用할것갓흐면그效果는特別히迅速할것임니다。

患部에直通되는理想的治療法

從來에子宮病、帶下症의治療法으로는內服藥으로서全身療法을行하는데不過하엿스나그러한治療法으로는根治될수가업고特히子宮의根源되는患部에直接藥力이直通되지안는治療法으로는到底히根治될수가업슴니다。그런데이런病은外科手術이나專門醫師의手術을밧어야될것임니다。그러나手術도苦痛이잇스며또한家庭上事情으로容易치못한일임니다。「오기나球」의療法은手術의苦痛도업시自宅에서局部에挿入하면一夜間熟眠하는同時에…强大한殺菌力과優秀한效果가發生하는것임니다。

一夜間에效果가生하는安眠療法

「오기나球」는決코無責任한販賣用의藥品이아니라醫學大家의實驗保證이잇고完全無刺戟한新科學의製品임니다。그使用法은極히簡便하야夜間就寢時에膣內에挿入하야두면安眠中에藥效가發生하게되는데

(一)消炎作用으로 膣內粘膜又는諸機關의炎症을治療함으로써抵抗力이增加함。
(二)防腐作用으로 腐爛을防止하며患部의療養을促進하고
(三)殺菌作用으로 麻菌梅毒菌을反撥驅逐함으로
(四)鎭痛作用으로 局部의疼痛、瘙痒을除함
(五)收歛作用으로 藥效가速히患部에吸收됨으로生殖機能도活潑하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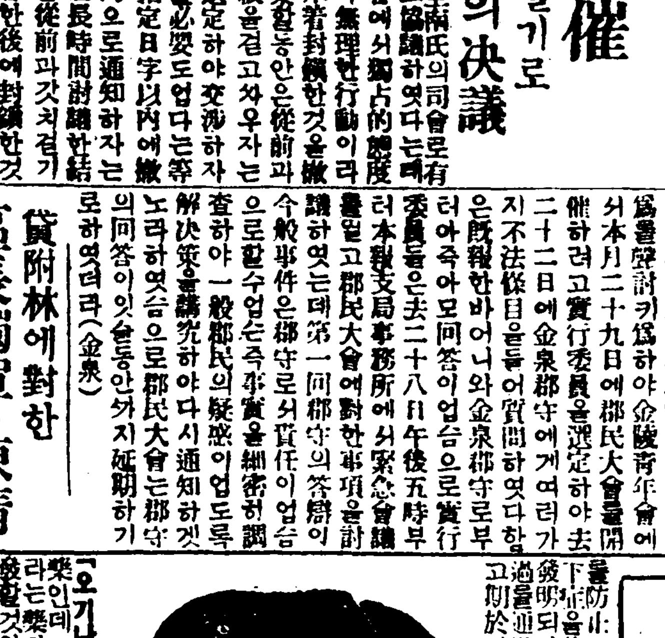
婦人病治療法 無代進呈 「오기나球」를實用하는婦人이나處女는…冊子를無代進呈하오니누구든지請求하시오

藥價

命之母		오기나球	
一圓	六日分	一圓	八日分
二圓	十三日分	二圓	十七日分
三圓	二十日分	三圓	二十七日分
五圓	三十五日分	五圓	五十日分
拾圓	七十日分	拾圓	百十日分

●「오기나球」와「命之母」는有名한藥房에서販賣하오나若品切인時에는直接左記處로注文하시오。代金은前金으로送金하는것이第一簡便하오나代金引換注文은送料中金五十錢을先送하여야됨니다。

命之母 오기나球 本舖 笹岡省三藥房 東京市京橋區新榮町四丁目一(電話京橋五五〇六番)(振替東京五〇五〇番) 大阪北區中崎町(電話北四二三三番)



오기나球

命之母

…를防止하는絕對의藥品이업스리오。여긔帶下症을基本的으로根治하는「오기나球」가發明되엿나니以上여러가지病症의經過를通過하는婦人은조금도躊躇치말고期於히試用하시기를바람니다

帶下症을根治하는
子宮藥
患部에直接作用되야 一夜間에效果가生함

帶下症의原因과其治療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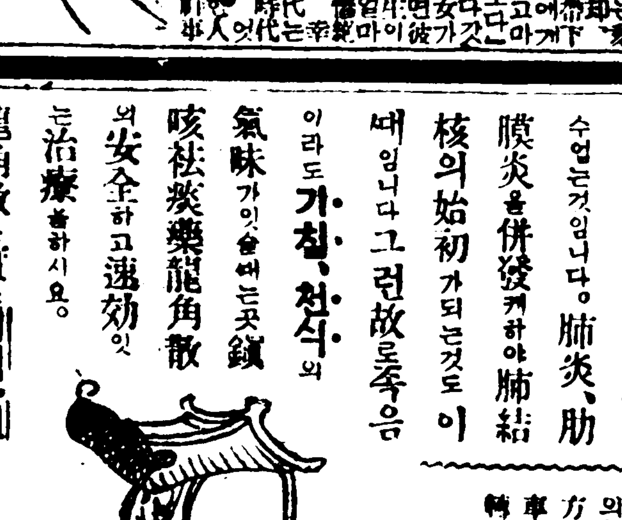
帶下症이라는것은月經以外에陰部에서희멀건것혹은透明한것이흐르기도하고或은코물갓흔것이나오기도하는것인데그原因은麻疾의感染、月經時의不注意、過房、子宮諸病、卵巢炎、膣炎等으로생기는것입니다。初期에는코물갓흔帶下가나오다가…

登錄商標

기침 천식
龍角散은 痰咳患者의指南車

좃음만感氣가原因으로기침、천식의氣味가생길때는到底히放任할수업는것입니다。肺炎、肋膜炎을併發케하야肺結核의始初가되는것도이때입니다그런故로좃음이라도기침、천식의氣味가잇슬때는곳鎭咳祛痰藥龍角散의安全하고速效잇는治療를하시오。龍角散은實로기침、천식患者를回復케하는指南車와가튼것입니다。

指南車라고하는것은中國의上代에잇든車로、길의方向에迷惑치아니하도록車上에木人形을두어…항상南方을指示하게된것입니다



龍角散

特長 龍角散은貴重한藥劑로되여少量으로도奏効顯著하고、또香氣가爽快하야服用키쉬움으로…服用할때마다咽喉의압흠을完全히낫게합니다

이런사람은반듯이試服하라

●담으로恒常곤곤하는사람
●천식으로가끔氣絕하는사람
●기침으로밤에잠못자는사람
●流行感冒로기침나는사람
●肺病으로늘기침나는사람
●담이냄새내고피가석기는사람
●목쉬며또咽喉에염증혼사람
●老人이나病人의虛勞性의기침
●百日咳又는紅疫기침나는小兒

其他如何히頑固한呼吸器疾患의기침도一二週間繼續服用하면그効果가顯著함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本舖 藥劑師 藤井得三郞

全國各藥店에有함

ClibPDF - www.fastio.com

求刑이끗나자 法廷에哭聲漲天

被告二十七名에게最高十個月 松汀里勞働爭議公判

【광주】송뎡리로동쟁의사건의 피고문계순(文桂順)외이십칠명의공판은 지난이십칠일 오전열한시부터광주디방법원제일호법뎡에서내산(內山)재판장외심리와송(宋)안전(安田)량배석판사와횡뎐(橫田)검사의립회로개뎡되엿섯는데피고들의가족들과동지들이다수히 참석하엿는중 재판장으로부터 문계순외 수명피고에게순차로 사실을심리한후 검사로부터 다음과가튼구형이 잇슨후 재판장의선언으로 오후네시에 폐뎡하자방텽석에잇던피고들의가족들이통곡을하야 재판소는 일시울음으로떠나갈번하엿다더라

文桂順、安命玉、金在根、宣成辰、介大吉各懲役八個月尹京三、金鳳根各十個月朴基淵、黃道根、徐山玉、柳東柱、千學凡、金吉洙、李京陽、丁炳允、朴宗烈、任仕王各六個月金士吉、任允燮、崔山斗各四個月金元仲、鄭顯四、李基順、安允弘、徐基日、李大日、李正王各罰金十圓

豫審免訴의決定을 檢事가抗告申立

형사소송중에드물게잇는일 엇더케결뎡될는지가주목뎜

청진(淸津)에 거주하는 김종식(金鍾式)이라는사람은 방화(放火)혐의로검거되야 청진디방법원검사국으로부터 방화죄로긔소(起訴)가되야 동법원 예심에부려이래 취조를밧어 오든중금월초순에 증거불충분으로 예심면소(免訴)가되엿는데동검사국에서는 그예심결뎡이 부당하다고곳경성복심법원에항고(抗告)를신립하야 목하동법원 민사데삼부당횡뎐(橫田)씨가심리하는중에잇다이와갓치예심결뎡에대하야검사가 항고를신립 하는것은형사소송중에 드물게잇는 일로상차그것이 엇더케나 결뎡이될는지매우흥미잇는문데라하겟더라

仁下靑年發起

시내사직동(社稷洞)청년들의발긔로 인하청년회(仁下靑年會)를 조직하고 오는십이월 오일오후두시에 시내필운동(弼雲洞)에서 창립총회를 개최코저 목하준비중이라는데 동사무소는 시내사직동(社稷洞)이백륙십번디 민영득(閔泳得)집에두고취급한다더라

二個月懲役에

二年間의執行猶豫로 일반방텽금지로열리엿든 釜山私刑公判과求刑

부산대신뎡(釜山大新町)사형 일본녀자 원뎐(園田)『요시』의 공판은 이십칠일에열리여 부산일본중학교 오년생 칠팔십명을 방텽식힌후 一般인사에게는 만원을 빙자하고 방텽을못하게한후 동이십칠일오전열시반에 무판사심리와 천면검사 입회로 개뎡되엿는데 입회검사로부터 피고원뎐요시에게 징역 이개월에 이년간집행유예에 처하여달라는구형이 잇슨후 판결언도는 오는십이월사일에 개뎡한다더라(부산)

覆審서도無期

강도살인사건

경긔도룡인군 고삼면대갈리(龍仁郡高三面大葛里)리홍룡(李洪龍)한룡순(韓龍順)(四〇)량인이며칠년유력십이월중에 충남홍성군 갈마면송강리(洪城郡金馬面松江里) 황석연(黃錫淵)갑산으로부터전입지엿든게(鮮)갑산 십원을밧으려온것을산중으로유인하야다리고가서 살해하고 소지금서지강탈한강도살인사건은 얼마전 경성지방법원에서 량인이모다무긔징역의 판결을밧엇다함은긔보한바어니와 량인은즉시그판결을불복하고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더니 그간한룡순은취소하야 복죄하고 리홍룡만 작이십구일동법원에서 말광(末廣)재판장으로부터 역시무긔징역에 언도되엿더라

殺人巡査三年

검사가구형해

일본고지현(高知縣)출생으로전남고흥군동강(全南高興郡東江)주재소순사로잇든 순사 삼곡성(三谷盛)(三?)이가지난 …일 그곳류경찬(柳敬贊)외한명이도박을하고잇는것을현장에서검거하고 한자리에잇든경남밀양(密陽)출생 리팔십(李八十)(三七)을 증인으로인치취조하는가운데사실대로 잘말하지안는다하야 차고때리고 온갓폭행을 다하야그로말미암아리팔십은절명되고만 전긔삼곡순사의 독직상해치사(瀆職傷害致死)사건은일쪽보도한바어니와 삼곡은 광주(光州)디방법원에서이년징역의판결을불복하고대구복심법원에공소하야 지난이십오일 공소공판이열리엿섯는데옥명(玉名)립회검사로부터 준엄한론고를한후 징역삼년의구형을하엿다는바판결언도는금삼십일이라더라(대구)

洞民同情어드려고 虛僞로强盜告發

疑問의銃聲으로警察活動

—생활이곤난한두형데가의론후 권총강도마젓다고거짓고발해—

지난이십사일밤열곱시경에 충북제천군수산면다불리(忠北堤川郡水山面多佛里)압 강가를통행하든 단양군배포면상진리사는(丹陽郡梅浦面上津里) 김윤주(金潤柱)김봉주(金鳳柱)두형제에게청년들이달녀들어현금삼원을강탈하며대항한다고륙혈포로겨누면서위협하는것을륙혈포끗을손으로쥐인즉그자는그대로발사하고그부근산골로도망하고말엇다고수산면주재소에고발하엿슴으로즉시현장에경관이달녀가피해자를조사한결과손에상처가잇스나총에마진상처와갓지안코또말을밋을수가업슴으로더욱엄중히취조하엿든바피해자는집안이군색하야생활방도를생각하든바마춤난데업는총소리가남으로부터들가에업더저서손을상하게하고그짓강도를당하엿다고발한후부근동민에게동정을엇고자한것이라고 자백을하엿다는데 어두운밤중에 들린 총소리는부근동리 사람들이모도 들엇다함으로 데천경찰서에서는 형사대를출동식혀 엄중히 사실을조사중인바 피해더부근에는 부자가잇슴으로 혹은정말권총 강도가아닌지의심된다더라(데천)

金堤日野精米職工 三百餘名總罷

임금문데로동맹파업단행

지난이십이일 오전다섯시부터 전북김데군(全北金堤郡)읍내김데로농동맹인쇄부(金堤勞農同盟搗精部)회원삼백명이 동맹파업을하엿다는데 그내용은 임금이부족함으로 여러번파업이잇서 경찰의간섭으로 각공당주인의립회하에 상당한결뎡을 보앗섯는데김데역전일야(日野)정미소에서는무리하게도 그임금을 강하고 동동맹회원을 사용치안한까닭이라더라(김데)

面小使打殺

싸우다가죽여

충북청주군 미원면미원리(忠北淸州郡米院面米院里)리종식(李鍾植)(五〇)은 동면사무소소사로 십오년간을 하로갓치 재근하야 오든바 지난이십이일에도 공문(公文)을가지고각동리에전달을하고돌아다니든중 동면 청석교(靑石橋)압천변삽개바위엿길에서동면금관리(金管里) 박련화(朴蓮花)(三五)와무슨말닷툼을한으로가치오든김성진(金成鎭)이가싸홈을 말류하면서 가자고말을하다가그는 그만 자긔집으로도라갓섯는데 리종식은 그후로곳그의 거처를수색한결과 맛참 종적이업슴으로 동면소 에서는 천긔장소에서 리종식과 박련화와 두사람이 밤이오래도록 홍롱하다가 그만피살 되엿는데 미원주재소에서는 현장에 달려가서 조사를한후 즉시천긔박련화를혐의자로 인뎡하고 시데를수색하는동시에 일방으로는 박련화를데모코저하는중이라더라(미원)

空證券事件豫審

부산에서백만원이상공증권을발행하야미게(米界)에대동요를야기하든 부산대텽뎡일뎡목 미곡상(大廳町一丁目米穀商)조부강신산(祖父江新三)외륙명은그동안부산디방법원 소산 예심판사(小山豫審判事)손에취조를밧든결과거이십칠일에 예심이 종결되엿다는데 전부유죄로 결정되여불원에공판에개뎡되리라더라(부산)

◇團成社◇
本報讀者優待日
優待券欄外에
自十一月廿八日三日間

◆天氣豫報◆
晴一時曇

意匠의一等은 京城紡織會社

第一回圖案廣告懸賞投票成績

—총투표가일만삼천오백표중에 경성방직회사가일천사백여표—

본사에서 처음으로 시험한본사광고부주최의 데일회 도안광고현상투표(第一回圖案廣告懸賞投票)는 일반독자의흥미도만히 끄러엇든더러 영업광고발달에 적지안은 공헌이잇섯슴을 자인하는바인데 드러온 총투표수가 일만삼천 오백팔표라는 만흔수효중에데일만흔것이 경성방직주식회사(京城紡織株式會社)의 일천사백 칠십륙표이며 그다음이 동아부인상회와 화평당등이다

인데 그표수는 다음과가튼며장차발표한데로 당선된 광고주의 영업성적을소개하려한다

◇廣告主當選◇

一等 京城紡織株式會社 一千四百七十六票
二等 東亞婦人商會 四三四票
三等 和平堂 三〇八票
總票數 一萬三千五百八票
備考 締切期日인二十四日以後에本社에到着된票는規定에依하야不得已除外하얏슴

一等當選幸運은 京城朴君에게

일등당선자에는류성긔증뎡 이등삼등사등에도상품증여

별항과가치총투표수효는일만사천여표로그외에이십사일이후에도착한투표는규뎡에의지하야부득이산입치 아니하얏스나 원데표수가만흔 까닭으로 광고부원들은전부가 밤을새워가며 정리를하야 결과를발표하엿한후 엄정한방법으로 추첨한결과 다음과가치당선되엿다더라

一等 蓄音器一臺소리판十枚 京城府安國洞一七三 朴容國
二等 懷中時計一個式 舊馬山府石町三三一 朴成實 京城府玉仁洞一五六 方正
三等 本報購讀券二個月分式 水原郡水原面山樓里 禹聖華 南原郡阿英面淸渚里 朴翻 京城府諫洞 鄭基本 統營郡山陽面烟谷里 尹致斗 京城府淸進洞 李壽錦
四等 本報購讀券一個月分式 寶山郡梁大俊、仁川府李德根、定州郡李鍾斗、伊川郡李秉元、信川郡李澈材、全南法聖浦安子明、京城仁義洞浪宗鎬、水原郡姜德永、馬山府保生堂、大邱府姜在根

黑人이變하야 美人이된다

黑人인지美人인지區別할수업든이결임의얼골이忽然히이와가치美人이된다

色黑顔녀드름죽은개헌대等顔病專門新劑하루나ー

白色美顔이되는說明 (非賣講義書無代送呈함)

五大博士大家研究最新學理

가장興味잇는問題로前日本紙愛讀者諸氏의注意를集中한「奇怪한美人」은忽然히이와가치훌륭한色白의美人이되엿다……얼골의半部를드럽게하든色黑을곳친외닭임니다。

이것을보아도알수잇는것과가치醜顔病風采病即天性色黑이나녀드름죽은개헌대等에걸리면如何한美人好男子도쓸데업시됨니다그런데最近科學의大進步에依하야人間의얼골과肉體가아름다워지고醜하야지는참根本原因을體內에서發見한것임니다飮食物等의關係로胃腸其他에特種의毒素가發生하야體內에吸收되야血液을惡化하야肉體組織으로부터皮膚의外部에더럽게噴出하는所謂自家中毒作用의正體를發見하엿슴으로이미先進外國에서는理想的根治法으로皮膚의惡色녀드름죽은개헌대等을全治하는血液을醇淨히하며빗갈을희게하며살결을艶麗히하는藥과治法이여러가지로發見되야優秀한偉力을發揮하야非文化의녀드름其他의醜한얼골을가지고잇는靑春男女는거의볼수업슬만치되엿슴니다……

時는日本서도外國藥을쓰나特種의化學作用藥은古來食物體質血液等顯著히달은異人種固性의原則으로全然無效할뿐아니라、往往毛髮이赤變하는等危險한惡作用을伴함으로藥學博士島田耕一先生、先生、敷津先生、越澤先生等日本醫藥界에有名한五大博士는共히協力하야日本人의血液에適中하며絶對無害有效한藥物을研究한結果新內治式의有名한하루나ー를完成한것임니다何如히頑固猛烈한色黑녀드름과죽은개라도한번하루나ー를試用하면곳眞價를암니다。

하루나ー는다만얼골과身體를色白艶麗히할뿐아니라赤顔袖顔肥胖症에有効하며毛髮을强케하며自然美를增進하는等 자못廣汎한偉効는이미全國周知의事實임니다。輕한녀드름等은겨우數日實驗으로自然히알것이오니누구시나 美顔의難病을悲觀치마시고實行簡單、効力迅速、最經濟的의三德을兼한하루나ー를即座에愛用함에限합니다發表以來곳無限한信用을得하야全國東洋到處의有名한藥局藥舖에서熱心取次販賣하고잇슴니다

●此際實驗希望者는金二拾錢만東京濟生堂本社로振替口座東京一七二〇一番으로拂込하거나切手爲替封入으로注文하시면特別試驗藥과左의五大博士大家의指導講義書를無代添附著金順으로急送합니다

●藥書一枚로白色美顔의秘訣書(無代로엇는다)

五大博士大家는自著의美冊을著述하야人體의血肉과皮膚와毛髮爪의構造와色黑의理由色白케하는方法녀드름죽은개의原因과療法髮爪等을아름다웁게하는方法等一切를알기쉽게說明하야누구시나必要智識으로今番無代로進呈하오니希望者는藥書에이新聞名과「藥書希望」이라고써서左記本社로申込하시면無代郵送합니다

東京市京橋區築地橋際 合資會社 濟生堂製藥所 振替口座東京一七二〇一番 電話京橋 五〇二七番 五〇二三番

東京市外大井町寺ノ下 濟生堂製藥工場 電話大森一二三番 二八七番

皮膚를아름답게하는 하루나ー石鹼

여러분의重大한얼골과身體의皮膚는보재기나전대가아님니다色黑녀드름죽은개들根本으로부터고치는것은五大博士大家發見의하루나ー에限한다 …막으로아름다웁게하는것은五大博士大家特別의發明하루나ー石鹼 一個 廿錢 全國藥店에有함

今年은秋에常用하야凍傷을驅逐하시요

純米國製

メンソレータム

멘소ー레ー다ー무

特長 無色크림으로愉快한香氣를가지고로無痛하고塗布後直時로快한刺戟을與함이宛然히慈母의손으로어르만짐과갓흠

特効 耐寒藥으로터진데、갈나진데等一切의凍傷、加答兒、頭痛、거칠지안케하고、顔、美身크림、面刀한뒤에얼골의消毒保健

四十五錢 九十錢 一圓八十錢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元賣捌所 竹內洋行 振替京城七九番

根本的으로强健化!

全國醫界에서唯一無二한强壯劑로推奬하여잇는……

부루도ー제

効果의卓絶함은年々히깁허가는信用이明確하게證明하여잇슴니다

本劑는現今頻々히滋養劑라든지或은强壯劑라고하야發賣되는그것과는全然달나서身體의모ー든機能을旺盛케하야根本的으로體質을健康케하며改造하는强壯作用을가진것이니이것이他劑의決斷코따르지못하는長点임니다

一個月分 大瓶 五〇〇瓦入
半月分 小瓶 二五〇瓦入

種類及適應症

生來虛弱한人 … 貧血症의人 … 神身疲勞의人	病後衰弱한人 … 外科手術後衰弱의人 … 寄生蟲驅除後의人	月經不順한人 … 手足厥冷의人 … 痩瘠한人	은 單味부루도ー제
長하衰弱한人 … 皮膚病잇는人 … 生殖器衰弱한人	糖尿病의人 … 腹膜炎잇는人 … 顔色이나쁜人	營養不良한人 … 神經衰弱의人 … 筋骨이弱한人	은 아루민부루도ー제
腺病質의人 … 佝僂病의人 … 體質이弱한人	瘰癧病의人 … 梅毒잇는人 … 發育不完全한小兒	梅毒性貧血의人 … 血管硬化의人 … 顔色蒼白한人	은 요ー도부루도ー제
産前及産後의婦人 … 이스데리ー의人 … 精神過用의人	老衰의人 … 食慾不振한人 … 虛弱한小兒	記憶力薄弱의人 … 元氣업는人 … 盛氣가적은人	은 기나부루도ー제
肋膜炎의人 … 肺尖加答兒의人 … 喘息의人	咳嗽잇는人 … 肺結核의人 … 百日咳의人	氣管支加答兒의人 … 咽喉結核의人 … 盜汗나는人	은 구아야꼬ー루부루도ー제
無病長壽를望하는人 … 老後益々元氣를望하는人 … 子孫의健全을望하는人	健康한體軀를望하는人 … 精力絶倫을望하는人 … 精神增加를望하는人	元氣旺盛을望하는人 … 記憶力增進을望하는人 … 皮膚艶麗를望하는人	은 單味又는기나부루도ー제

說明書及文獻請求次第進呈

賣捌 到處藥店에서販賣합니다

發賣元 藤澤友吉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四二 電話光化門 五〇四、一九一七、八八三番 振替口座京城 五五八九番

日本預金利下는

實現漸次機運爛熟

◇…大阪信託畢竟利下

過般三井信託이 來期受益者配當率을 年六分五厘乃至七分으로 發表함을 機로 하야 關西各信託會社에서는 金利의 低下傾向을 보고 從來의 七分以上配當率을 維持하기 困難함을 感하야 住友、安田兩信託會社間에 引下를 交涉中이엿든 바 去二十七日 畢竟 住友信託이 六七厘內外引下를 發表하고 又 安田信託도 同樣으로 引下하야 十二月一日부터 實行하게 되엿스며 此에 依하야 東西有力信託은 모다 利下를 實行하게 되야 問題의 預金利子引下도 그 主要한 障害가 除去하엿슴으로 來春金融緩慢期가 되면 반다시 預金利子를 引下할 形勢이라더라(東京電)

日銀利下는

時期問題

日銀의 第二次利下는 各方面에서 豫期하든 바 日銀當局은 市中金利가 追從하는 傾向이 보이지 안이하면 不可能하다고 한다 去月第一次利下當時 民間銀行에 對하야 預金의 利下를 懇談하엿스나 銀行側에서는 信託預金과의 均衡으로 實現치 못하엿다 그러나 信託會社側에서는 國內信託이 率先하야 受益配當率을 引下한 結果 三井信託을 비롯하야 安田、住友等의 大會社가 此에 追從하야 東西가 모다 利下의 步調를 取하게 되엿슴으로 預金利下와 日銀의 第二次利下는 아즉 時期의 問題로 銀行業者의 障害는 全然消滅한 모양이라 三月頃에는 實現될 것이라고 觀測한다더라(東京電)

露國輸出防穀

總督府殖産局에는 外務省의 報告에 依한즉 露國官憲은 昨年以來 「모시에」에 國營貿易交易所를 設置하야 穀類의 集散을 行하얏는데 今年도 其出廻期에 際會하엿슴으로 近日來 南烏各地에 所員을 派遣하야 購入하나 一般市價와 隨時差가 잇슴으로 朝鮮內或은 中國領土에 輸出하라는 傾向이 잇는 結果 此狀況을 看破한 露國官憲은 對策을 講하게 되야 最近에 아래와 가티 告示하엿다더라

(一)國營取引所를 經由치 안코 穀類를 山으로 輸出하는 者는 刑法第一二六條國內商業獨占罪에 依하야 六月以上의 懲役에 處함

(二)社會團體員과 共濟組合會員은 當該輸出者防止에 對하야 此取締에 責任이 有함

(三)穀類購入 次入落코자 하는 者는 官憲에 申告할 일

京仁取合併

條件은 成案

三氏가 交涉?

京仁兩取合併의 條件에 對하야 그 重要한 條件을 엇더케 定할가 하는 것은 가장 困難한 點으로 京取側에서는 合併條件의 作製上 此에 對하야 相當히 調査한 모양이나 結局 그 基準을 公定市勢에 置함이 가장 公平하다 하며 京取市場의 昨今市勢로 보아 約一圓差가 잇슴으로 仁取側이 無理한 條件을 提出치 안는 以上 兩社條件이라는 것은 큰 妨碍이 업슬 뜻하고 또 兩社重役으로는 兼任한 重役이 만흔 關係上 一次交涉하게 되면 意外에 圓滑히 進捗될 듯한 바 兩社의 合併條件은 이미 成案되야 各各 節調로 가면 何時라도 交涉할 수 잇게 되엿스나 調査委員이 交涉하는 兩社重役이 贊成치 아니함으로 結局合併 斡旋한 渡邊、鈴木、富田外二氏가 三氏에게 交涉케 하야 兩社에서 氏에게 合併條件을 提出하리라더라

韓銀庶務課變動

韓一銀行의 庶務課長 姜浦氏는 今般大田農工銀行의 事情으로 辭任하고 그 後任으로 同行 其然祖氏가 任命되엿다더라

鮮銀支店閉鎖

會寧、鎭南浦說有力

東京電으로 報한 바 鮮銀의 朝鮮內支店閉鎖를 傳하는 바 此에 對한 總督府當業者의 말에 依하면 二三年以前 財界變動은 大體鮮銀이 今日과 가티 大整理한 것은 朝鮮內支店의 業績의 不振한 所以이며 또 現在十一個의 支店이 條條收支의 平衡을 保持함으로 閉鎖할 必要도 업슬 것인 바 萬一 鮮銀整理上 節約하야 業務를 縮少한다는 意味로 整理케 되면 鎭南浦와 會寧의 兩支店일 것이다 會寧은 淸津과 羅南의 中間에 잇서 所謂 中間取次를 行하고 商業金融은 殖銀都市金組에서 現在는 充分하며 또 鎭南浦도 平壤이 接近하고 同地에는 殖銀商銀의 支店이 잇서 普通商業金融이 圓滑하야 兩支店閉鎖는 全然不可能하다고 할 수 업다더라

資金需要

意外不活潑

鮮銀券一億圓接近

鮮銀券은 二十七日發行高九千九百七十六萬八千餘圓、限外五百三十四萬七千圓으로 發行高는 一億에 肉迫하게 되엿스나 資金의 動은 豫想한 만큼 活潑치 못하더라

煉炭需要旺盛

薪炭은 不振

近時 朝鮮內主要都市의 燃料이 木炭、薪이 漸次煉炭、石炭으로 轉換하야 木炭、薪은 年年需要가 減少되는 現狀이며 此傾向은 一般이라 그 原因을 아래와 가티 解釋한다더라

(一)煉炭、石炭이 工業用 家庭에 溫突暖爐其他炊事用으로 使用함이 激增하야 從來의 炭、薪을 驅逐하는 일

(二)原木이 漸漸減少되야 産地가 鐵道沿線으로부터 漸漸遠距離가 되고 그 中木炭은 最近日本에도 販賣되야 移出이 旺盛함을 따라 市價가 高騰하는 일

日本郵貯改正과

朝鮮은 如何

蒲原遞信局長談

遞信省에서는 大藏省承認을 得하야 來年七月부터 預入月利子計算과 月掛据置貯金制를 採用케 된 바 此에 對하야 蒲原遞信局長은 아래와 가티 말하더라

遞信省에서는 郵便貯金減退 對策으로 大藏省에 對하야 貯金利子引上、預入月의 利子計算、加入月掛据置貯金制度의 開始와 運用委員會에 對하야는 資金地方還元 等을 交涉中이든 바 大藏省도 此에 對하야 預入月利子計算 月掛据置貯金을 認定하엿스나 朝鮮은 엇더한가 하면 곳 此에 追隨할 意思가 업는 바 아니나 一兩年遞信省의 成績을 본 後에 그 成績如何에 따라 實施할 이 萬一 準備될 것이오 特히 此制度에는 相當한 人件費等 多額費用을 要하야 收支相伴치 아니할 것임으로 考慮硏究할 바이라 云云

京城手形交換

枚數減、金額增

今月二十二日부터 同二十七日까지의 京城手形交換高는 二萬二千五百七十九枚 千百十五萬十三圓十五錢으로 前週에 比하야 枚數 千三百七十二枚 減金額은 七萬八千七百廿六圓十八錢이 增加하더라

白米續落

一圓引下를

◇精米組合決議

京城精米組合에서는 二十九日協議한 結果 白米都賣와 小賣價格을 各一石에 對하야 一圓假量引下하야 아래와 가티 十一月三十日부터 實行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一石에對한價格)

(一)白米(一等)都賣 三十二圓五十錢

(二)白米(一等)小賣 三十四圓五十錢

期米

前場無勢

仁川 廿九日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	—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休前三十四八十八錢에 稍强히 止하엿는데 今朝大阪初付는 一下低하야 三十六圓十錢을 報하엿스나 當地는 人氣稍强바야 三十圓九十錢에 도리혀 二丁高로 初付한 後에 大阪二節同價와 갓치 八十九錢에 小弛하다가 곳 九十一錢에 反强하는 際에 大阪이 〇五錢에 急落하야 三十六圓寄割을 報함으로 小口方의 良貝投物이 殺到하야 八十一二錢으로 七十六錢에 惡化하더니 主力側이 依然頑張함으로 續落지 못하고 大阪止價의 小反를 보고 急히 八十四錢에 反高하야 結局 八十一錢에 止하다

後場稍騰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illegible]
二節	—	—	[illegible]
三節	—	—	[illegible]
四節	—	—	[illegible]
五節	—	—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 (單位石)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入價格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各店倭合

中限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大阪大受渡와

今後强弱兩面

大阪의 當限手當米가 多量으로 準備되엿다는 것은 分總額될 것이니 當場에 조금 强硬한 가 當到하는 關係上 産地貨物은 當場에 至금 强硬 [illegible]

全然理想만을 팔은 것이 完全히 現實化한 것을 볼 때에 今後出廻가 繼續되는 동안에는 期近低의 現象을 難免일 것갓다 其受渡石數等은 左와 如하다

受渡價格 三十圓三十錢

受渡石數 一萬一千四百石

渡方 [illegible]

受方 [illegible]

出廻一巡으로

人氣稍强

今朝大阪은 大渡米를 敢行한 軟派의 活動으로 遂히 三十六圓寄割을 示現하야 目前形勢頗히 險惡한 觀이 有한데 當地는 人氣그다지 惡化치 아니하야 依然八十錢臺를 維持하는 것은 要컨데 日本産地出廻가 一巡하야 其堆積한 正租의 산덤이는 減少되엿슴으로 따라서 賣手는 버틔고 買手는 사고 싶허하는 風前이 有하야 正米가 稍强한 所以이다

米豆餘聞

◇…大阪當限은 果然九萬二千五百石으로 大受渡되엿다 買方이 그 간치를 밧어넘기고도 先限서 지버티는 것을 보면 今後에 當할 작자이 容易히 잇지아니할 뜻

◇…萬一에 前途需給數字에 着眼한 바 잇다하면 出廻期에 賣米를 손에 늣지 안코는 事實多量의 賣米量만 커 보기가 수헐치 아니할 것이다

◇…將來의 일은 누구나 알지 못하는 것이나 强이나 弱이나 말할 것은 업고 軟派로 말할지라도 大量의 賣米를 買方에게 양긴 관이니 한번 두드려보지 못한 담

◇…仁川埠頭에 堆積하엿든 나락의 山은 次次로 줄어든다 昨今當地의 人氣多少强한 것이 其在米減의 外닭인 게로군

◇…적어도 今後一個月間에는 正米가 繼續的으로 出廻될 것이니 當場에 在高가 주는 것을 보고서 곳 强化치는 못할 것이다

當限平穩納會

當地十一月限物은 今前場限하야 三十圓四十錢에 平穩히 納會를 告하엿다 이十一月限은 當初 三十一圓三十一錢에 誕生하야 稍漸低落하야 其先限時代에 二十九圓六十五錢의 低價를 示現하고 中限에 넘어와서 日本二回豫想激減과 갓치 三十二圓〇五錢까지 爆發하다 가 新米出廻와 共히 다시 軟化하야 三十一圓內外에서 彷徨하다가 當限物이 되면서 더욱 現實의 威壓을 밧어 終是擡頭치 못하고 畢竟三十圓四十錢에 最後終幕을 告하니 北一代高低의 步幅은 二百四十四丁에 不過한 凡調이엿스며 其當初發會價에서 百餘丁下廻로 納會를 告하야 當初에 當時現實을 無視하고

인데 前途供給이 樂觀을 不許하는 今後成行은 實로 注目을 要하는 바 米出盛과 가치 受米壓迫을 밧어스사로 投賣하는 境遇가 잇슬 것인가 치 滯滯업시 賣行될 것인가 또는 正米出廻에 [illegible] 當分米出時代만 넘어스면 其受米의 壓迫은 當하는 것과 갓흔 일은 萬無할 것으로 推察할 수 잇다

인데 이것이 其受渡高를 보니 果然九萬二千五百石의 大受渡로 맛치엿다 每樣大受渡가 繼續된 後에는 大暴勢가 떠든다 只今外지 記憶이 새로운 石井定七의 倒壞는 大量受米를 거듭한 뒤 이오 這般山田商店의 慘敗退却은 先買渡米로 악지를 부린 緣故이엿다 只今大阪의 潮先一派는 年來一貫하야 大量受米를 繼行하엿스나 버를잘 利用한 外닭에 于今外지는 每每勝利를 博하엿거니와 這般受米가 미처 全部處分되기 前에 또 近十萬의 實米를 안엇스니 今後에 果然 只今外지와 가치 滯滯업시 賣行될 것인가 또는 正米出盛과 가치 受米壓迫을 밧어스사로 投賣하는 境遇가 잇슬 것인가

한 곳 한 그것을 足히 信頼할 수 도 업다 이곳에서 人氣가 一變하고 못하는 것은 只今買方主力의 動靜如何에 全在한데 果然何等動搖가 업시 버 티여 나아갈는지 問題이다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六圓十錢

東京期米

前場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後場 一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市勢

(一)二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二)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査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各地延取引

釜山

穀良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前場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一節—八節 [illegible]

後場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illegible]

大邱

穀良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前場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一節—六節 [illegible]

後場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illegible]

群山

全維 [illegible] 賣買高 [illegible]

前場 十二月中 十二月末 一月中

一節—四節 [illegible]

株式

前場閑散

京取 廿九日

▲京取三十錢高▲鍾新四十錢高▲大新五十錢高▲久原三圓五十錢低

依然不氣乘

今朝大新은 阪付四十錢高의 勢임을 보고 當地도 九十九圓九十錢 付價後 百圓臺를 恢復하고 三十錢外지 잇섯다가 四十錢後稍高인 百圓大引이엿스며 京取는 十錢高인 二十九圓五十錢付價後 七十錢大引이엿고 鍾新은 百四十三圓步調一口 久原은 阪地百七圓臺이나 當地百五圓五十錢의 下稍步調一口가 잇섯다

大新今後觀測

一向百圓中心

連日大新은 百圓中心의 市勢로 寂寞、强弱의 兩方도 不鮮明한 態度를 따라서 賣買가 거듭하야 極無味하고 其見送의 傾向이 만허 顯著한 新材料가 업는 限에는 現像이 目前에는 持續될 듯한 바 何如間 下旬貿易의 結果를 따라 多少의 動搖가 되지 아니할가 하나 下旬도 亦是出超增加가 업슬 것인즉 向此邊에서 小往來를 持續하다가 來月中央에 入하야 年末市勢의 落이 엿날 듯하다는 觀測이 잇다

久原當地下鞘

久原은 戰이 豫想外로 無事히 平穩하여지고 別로 市勢의 瓦落이 업는 點으로 보아 阪地買警戒이라 하나 一面아즉 買方의 態度가 强硬하야 軟派가 敢히 賣込치 못하는 모양인 바 今朝阪地는 依然保勢임을 不拘하고 當地는 一圓五十錢下稍의 百九圓五十錢步調 一口가 잇섯다

京取配當無響

京取는 定例重役會가 迫近함을 作하야 配當說이 起하니 一部에서는 七分은 無慮하고 或은 八分說까지 唱하나 近日市勢에는 何等反響이 업시 一向二十八圓臺에서 彷徨할 뿐이다 要컨데 此는 大新의 無勢로 一般이 不氣乘을 感하야 仕手乏의 所以이다

前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鍾新＝[illegible]

◇大新＝[illegible]

◇久原＝[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鍾新＝[illegible]

◇久原＝[illegible]

◇新東＝[illegible]

後場保勢

▲京取保價▲鍾新八十錢高▲大新五十錢高▲

後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鍾新＝[illegible]

◇大新＝[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鍾新＝[illegible]

◇久原＝[illegible]

◇新東＝[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短期算定及日步

株名	日步	算定代
京取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一、四四〇枚

累計 三二八、二七〇枚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綿布 大極星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三神山A [illegible] 三神山B [illegible] 金剛山 [illegible] 櫻管 [illegible]

▲綿絲 扇面16 [illegible] 人蔘 [illegible] 雙女 [illegible]

◎大阪三品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扇面16 [illegible] 鶯 [illegible]

▲飛大13 [illegible] ▲晒金巾 [illegible] ▲金 船 [illegible] 進 [illegible] 軍 [illegible]

▲吸木綿 付 [illegible] 船 [illegible] 票 [illegible]

◎橫濱生絲

前場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現物武州格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illegible] 枚

金額 [illegible] 圓

◎朝鮮銀行券 廿七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廿七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千圓單位)

◎日本金利 廿七日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越月物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一錢單位)

◎海外經濟 廿九日着

倫敦銀塊 二五片十六分七

紐育銀塊 五四仙四分三

米綿 三十錢低

印綿 二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五仙八分一

スヰス 一五〇弗四分三

아나콘다 四七弗八分五

麻衣太子 【下篇】

春園 作 丹谷 畫

【四十八】

오호경슌 (三)

일변 오백리큰길을닥고 일변데농시방창에 인민을 부역하야 궐과 진헌관에 말못된포석영을 수리하며안압지(雁鴨池)를더깁히파고 그우헤 그림그린배를씌우고 오놀이나 내일이나하고고려왕 왕건이 오기를 기다리니민원은 차런하고 국고는경갈하야 며소관원의 록이두석달이나 밀리고 금영군사의 록조차삼사삭월을밀리니 군사들은 다라나고관원들은 집에잇서 밥버리할일을 구하는형편이엇다。

구월에는 국동연해주(國東沿海州)의모든고을과 부락이고려에항복하고 재암성장군 선필도 붙일을다본드시왕건에게항복하야상보(尙父)라는존칭을엇고고려시서울 송도에 큰예택과만석록과 아름다온 만흔비복을주어 영화를누리게하나신라의며소관원은 일족고려에 돌아갈반연얻는것을한탄하게되엿다。

태자 장충이 비록장대등유렴과함께나라를 바로잡기를 꾀하나 큰집이문허질때에 외기동이 버틸수가업섯고 백사가 다뜻대로되지아니하니 태자도 세상에 뜻이업서 다시술을마시고 유롤과미희를 쇠이게되엿다。

이것을본 왕후백화부인과 태자비 계영부인은 루누허태자의 생각이 그릇됨을 말하엿스나태자는 다만길게한숨을 쉬일뿐이엇다。

온다온다하고 아니오던 왕건이 경순왕오년이월에서울로온다는신문이왓다。 왕건은거느린군사를 곰의나루에 머무르고오십녀긔의 시위병만다리고 서울에 들어올새 왕은백관을 거느리고 서악재(西岳峴)까지나가마잣다。태자와 유렴도왕을따라서악재까지나갓다。

이날이 아직이른봄날이라、산사그늘에는 녹다남은 눈조차잇건마는 백성들은 고려왕의행차를보리라하야 금쳑룡 십리人길에좌우로 수업시 늘어서잇섯고 장안 백성들도 남녀로소할것업시길人가에 나섯다。 길人가에는해또개부터엿장사와 떡장사와술장사의한데人가가가버렷고 아희들은 새옷을닙고 김버뛰엿다。

문무백관들은 찬란한 관복에 소리조흔 패옥을차고 긴칼을차고 흥흥고 수레에나려길人가에 둘어서 왕건을기다리고왕은 맨뒤에 장막속에 안젓섯다

해가나지기울어바람이솔솔불기시작할때에 서쪽에서 보야ㅅ케 몬지가날고 긔치와 창검이 번적거리며 고려왕의행차가 각웃감웃오는것이보엿다。 그중에둥두렷이놉흔련이 바람에 둥둥떠오는듯이 흔들니지도안코 온다。 그것이 왕이보낸련이다。

왕건의련이 점점 갓가히오매 이편에서는 일시에 풍악이닐어낫다。 바람결에거편에서도풍악소리가 들려온다。 련지는 왼통 풍악에찬듯하엿다。

왕건의련는 점점갓가워 지고 말탄군사의 얼굴이 보일만할때에 이편에서는 더욱풍악을올리고 목소리조흔 악인으로하야금 만세악(萬歲樂)을부르게하엿다

신라천년에 이런일은 처음이엿다。 태종무렬왕이 백제와 고구려를통일한후로 어런디에 신라왕맛게 련을타고 서울로들어올이는업섯던것이다。 하물며그런을타고 들어오는이가 경문대왕시절에 미미한일개 한산주도독(漢山州都督)이이든 왕륭의 아들이오 역적궁예의 신하임을 생각하는람은 사람들과 유렴과을누라서 알앗스랴。 이런일을 태자는 눈물이 흐름을금치못하엿다。

그러나 왕건의련이 압흐로지내갈때에 길人가이 눈어섯든신라의 왕족과 귀족과며관들은다토아 허리를굽히여 니마를땅이며히고、

『신라이손 아모아뢰오』

『신라금손 아모아뢰오』

하고 왕건의눈이한번 자긔우헤떨어지기를 애걸 하는듯하엿다。 그런것을 왕건은 련우헤서 슬적 나려다보앗다。 신라며관들은 왕건이 지내간뒤에도굽혓렷든 허리를펴지아니 하엿다。 왕건의 신하들의눈에는 찬우슴이잇섯다。

社告

記者 吳基永

右와如히本支局記者를任命하야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白川支局

今般本支局業務를刷新擴張키하야左記와如히位置를移轉하고電話를開通하엿삽기玆에社告함

水原郡水原面新豊里四二

電話一四三番

東亞日報 水原支局

今般本支局記者金龍澤君은事에依하야辭任하엿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 金化支局

튼튼한婦人의벗

아모리冷性의婦人이라도中將湯을잡수시면곳身體가더워지며말할수업시心身이조하짐니다 그처위에弱한婦人의健康에는中將湯만큼조흔것이업습니다 닛지마시고愛用하시요

中將湯

중장

血液循環을佳良히하며血管硬化를막으며身體의抵抗力을加케하며體肉을더욱게하야婦人疾病을驅除하는婦人唯一의良藥입니다

主効 子宮病、血の道、冷え性、ヒステリー、月經不順、下腹痛、逆上、頭痛、不眠症、足腰冷、産前産後、惡阻

容體에쌀하

本舖에는數種의中將湯加減藥이잇슴니다 容體를通知하시면病症에適應한中將湯加減藥을迅速히送呈함니다

定價 十一日分 金二圓

定價

七日分 五十錢

十五日分 壹圓

廿三日分 [illegible]

四十日分 [illegible]

八十五日分 拾圓

參圓以上은送料本舖負擔

本舖 津村順天堂

本店 東京市日本橋區通四丁目 電話大手三八番

支店 大阪市南區長堀橋筋一丁目 電話南二百六十五番